



뷰티테크 혁신 돌풍 16개월 만에 시총 6조

K뷰티 기술로 판 바꾸다

① 에이피알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K뷰티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K뷰티 기업들이 자체 구축한 기술력이 단순 소비와 유행을 넘어서는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K뷰티의 최신 트렌드를 세 차례에 걸쳐서 짚어본다. (편집자주)



APR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비상장 스타트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기업 입지를 높인 데 이어,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1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권시장에서 에이피알은 시가총액으로 LG생활건강을 앞지르며 현재 1위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 뒤를 빠르게 쫓고 있다. 이번 기록은 에이피알이

1분기 매출 79%, 영업이익 97% ↑
K뷰티 기업 LG생활건강 앞질러
해외 매출 비중 55%, 글로벌 확장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알’ 주력
‘스마트 홈 케어’ 구조 확립 박차

지난해 2월 상장한 후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지난달 23일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5조3718억원으로 처음, LG생활건강 시가총액 5조3336억원을 넘어섰다. 이달 9일 기준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6조2126억원으로 아모레퍼시픽(7조8790억원)을 겨냥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2024년 2월 상장했고, 당시 공모가 기준으로 1조8960억원이



에이지알 신제품 ‘부스터 진동 클렌저’

/에이피알

었던 시가총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에서도 외형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722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1227억원, 순이익은 1076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8%, 32% 확대됐다.

에이피알의 올해 연간 매출 목표치는 1조원이다. 이미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올렸다. 매출은 26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5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폭발했다.

에이피알 전체 매출은 지난해 기준, 국내 사업 45%, 해외 사업 55%로 구성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에이피알은 미국 22%, 중화권 14%, 기타 12%, 일본 7% 등 해외 전역으로 진출해 있다.

이처럼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에이피알의 주력 브랜드는 ‘에이지알’이다. 에이지알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로, K뷰티 영역을 기존 화장품에서 뷰티테크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피알은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가능한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집에서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홈 뷰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혁신적인 뷰티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은 물론 대중성까지 갖춘 에이지알 제품군은 부스터 프로, 울트라 튠 40.68, 하이 포커스 샷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신제품으로 ‘부스터 진동 클렌저’,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 등을 내놓았다. 부스터 진동 클렌저는 세안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약 3만9000회(5단계 3분 사용 기준)에 달하는 미세 진동이 피부 위생을 돕는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은 1회 사용만으로도 손세안 대비 약 133% 높은 메이크업 세정력을 보였다.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는 기존 부스터 프로 미니를 재단장한 것으로 이번 신제품인 부스터 진동 클렌저와 결합해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화장품 사업에서도 속도를 낸다. 올해 1분기 화장품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나 1650억이다. 에이피알만의 뷰티테크를 집약한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를 이어가는 동시에,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모바일 앱 등으로 연동되는 ‘스마트 홈 케어’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이철민 현대차 국내마케팅실 상무가 지난 9일 경기 의왕시 ‘N 아카이브’에서 아이오닉 6 N을 소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고성능 전동화 ‘아이오닉 6 N’ 세계 첫 공개

현대 N 최고세단 타임 EV 모델
트랙·일상에서도 즐거운 주행
올해 4분기 국내 출시할 예정

“트랙은 물론 일상에서도 즐거운 주행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철민 현대자동차 국내마케팅실 상무는 지난 9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N 아카이브’에서 아이오닉 6 N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대 N 아카이브는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에 사용한 현대차 N 브랜드 차량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수장고 시설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 N의 출시를 통해 고성능 전동화 모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오닉 6 N은 모터스포츠와 움직이는 연구소라는 뜻의 ‘몰링랩’에서 얻

은 차량 데이터,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이 결합돼 주행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차량으로 트랙 주행과 일상 주행 모두에서 고객을 만족시킬 현대 N의 두 번째 고성능 전동화 모델이다.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이하 현대 N)은 고성능 전동화 모델을 통해 즐거운 주행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브랜드 3대 성능 철학인 ‘코너링 악동(Corner Rascal)’, ‘레이스트랙 주행능력(Racetrack Capability)’, ‘일상의 스포츠카(Everyday Sports Car)’를 기반으로 아이오닉 6 N을 개발했다.

이 상무는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N 브랜드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됐다”며 “아이오닉 6 N은 현대 N 최고 세단 타임의 고성능 EV

모델로 올해 4분기 국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오닉 6 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과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를 바탕으로 ‘N 그린 부스트’ 사용 기준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PS)의 최고 출력과 770Nm(78.5kgf·m)의 최대 토크를 갖췄다. 이를 통해 노면 상태에 따라 성능 제어를 최적화하는 ‘N 런치컨트롤’ 사용 기준 3.2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는 폭발적인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아이오닉 N 5의 제로백(3.4초)을 넘어선 수치다.

아이오닉 6 N은 가상 기어 단수비율을 세밀화한 N e-스위치가 탑재돼 끊임 없는 가속과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하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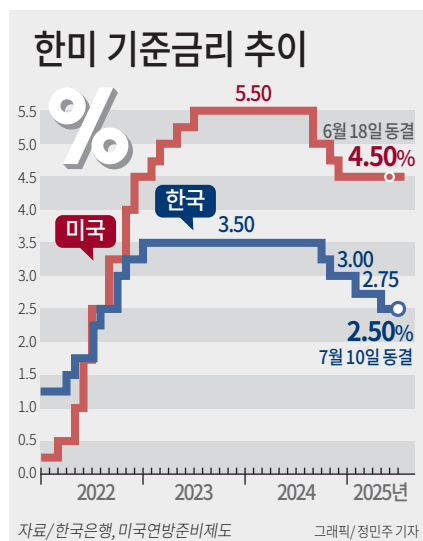
집값 상승, 가계빚 우려… 기준금리 ‘동결’

한은, 금리 연 2.50%로 유지
내수부진 우려는 더 커질 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50%)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연 3.50%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1.00포인트(p) 인하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는 서울 및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 증가→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으로 늘어난 서울시 주택 매매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상승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6월까지 지



속됐다.

집값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월 기준 99.91로 전기 대비 0.03% 하락한 반면 서울은

100.88로 같은 기간 0.5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월~5000억원→2월 3조2000억원→3월 1조4000억원→4월 4조8000억원→5월 5조2000억원→6월 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 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한다. 2월부터 증가한 주택매매가 6월 가계부채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며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금리 결정으로 내수(소비·투자)부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통령실, 해병특검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할 예정”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해수부 부산 이전 반드시 될 것” /사진 뉴스시스

▲與 “국힘 ‘정치보복’ 프레임 몰두… 특검 수사 호도하면 안돼”
▲국힘 “민주, 위헌정당 해산 들먹여… 협치 말하면서 야당 말살”

▲국정위, 22일 청소년 타운홀미팅… “55인 국정기획위원 모집”
▲우 의장 “尹 재구속, 사필귀정… 재판 엄정히 진행되길 바라”

위성락, 美에 ‘패키지 협상’ 제의… 정상회담 시기는 ‘아직’

〈국가안보실장〉

韓美 상호관세 협의 내용

“관세협상 꽤 진행돼, 의제 식별”
양국 ‘조속한 정상회담’에 공감
李 대통령-트럼프, 만나지 않고
실무단 논의 ‘바탕 업’ 방식 전망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내달 1일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안보 의제가 추가되면서 빠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타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위비 등 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만 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에서 돌아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코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패키지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 대해 “꽤 진행돼 왔고, 의제가 식별돼 있다”고 말했다. 앞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진행된 셈이다.

또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자는 데 공감했지만,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최적의 관세 협상 결과를 끌어낼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등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바탕 업’ 방식이 될 전망

이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연계하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관세만의 이슈가 한미 간 의제는 아니고, 그 외의 정세·안보 등 여러 측면이 있어서 정상회담을 할 동력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패키지’로 묶인 안보 협상은 관세 협상과 다른 모양새로 진전될 전망이다. 현재 안보 협상에서는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엔 국방비 인상 논의가 있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위 실장이 언급한 ‘국방비’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뜻한 게 아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10

배 가량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SMA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국방비 전체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 그 얘기는 있었다”며 “일단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1조5000억 원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MA 외에도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따로 있고, 국방비 전체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러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많이 하고,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즉 현재 주한미국의 역할 변화, SMA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뭉뚱그린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패키지로 관세·안보 협상이 이뤄지지만, 속도가 다른 셈이다. 또 오히려 안보 이슈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톱 다운’ 방식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만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대통령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대통령실은 1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면서 “정책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E100 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과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이 다르다면서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

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며 “RE100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고 RE100 산단 조성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RE100 산단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비트코인 ‘11만2000달러’ 최고가 경신

美 엔비디아 등 기술주 상승 동조화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BTC당 11만2000달러를 넘겼다. 미국 내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의 가격상승과 동조화 흐름이다.

1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께 전일보다 약 2.27% 오른 1BTC당 11만1207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장중 한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1만2055달러를 기록해,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1만1900달러를 경신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강세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6.24% 상승

했고, 리플(XRP)은 3.58%, 바이낸스(BN)는 1.31% 올랐다. 솔라나(SOL)도 2.79%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은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AI 대표주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여서다. 엔비디아는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9% 오른 4만4458.30에 장을 마감해 시가총액이 4조달러대에 진입했다. 엔비디아는 오는 9월 중국 전용 AI칩을 출시할 예정이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중국 방문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로 안정적인 코너링

>> 1면 ‘고성능 전동화…’서 계속

실내 간접 조명을 통해 최적 변속 타임을 알려주는 N 앰비언트 슈프트라이트 기능이 함께 적용돼 물입감 높은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아이오닉 6N에 적용된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는 사운드를 구현하는 능동 음향 제어기(ADP, Acoustic Design Processor)의 성능 강화와 실내 스피커별 채널 할당으로 입체적인 음향 효과를 구현했다. 또 신규 사운드 ‘라이트스피드(Lightspeed)’, N 그린 부스트 사용 효과음 등 다양한 신규 고성능 음향 효과를 제공한다.

또 차세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적

용해 경쾌하고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과 뛰어난 한계주행 능력 등 일상을 넘나드는 고성능 주행감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현대 N은 10일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인 ‘2025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아이오닉 6N을 전 세계에 처음 공개했다. 지난 2023년 이곳에서 아이오닉 5N을 공개한 데 이어 아이오닉 6N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차 CEO 호세 무뇨스 사장은 “현대 N은 아이오닉 6N을 통해 고성능 주행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일상과 트랙 주행에서 고성능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기반한 짜릿한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잠재성장률 3% 복귀’ 위한 전담반 가동

기재부·한은·KDI 연합 구성
노동공급 확대 등 정책방안 제시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의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이는 2%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대로 복귀하기 위한 TF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TF는 우선 주요 국정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를 이달 하순 또는 다음 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에는 특히 한은이 참여하면서 한은이 그간 제시해온 대응책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산업생산성 혁신 ▲청년·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교육·직업훈련체계 개선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등이다.

KDI의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공급 확대 ▲산업구조 전환 ▲혁신역량 강화 ▲중요소생산성 향상 ▲규제개혁과 기업환경개선 등을 제시해 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

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들은 각 부처가 사업화·예산화하고, 세제지원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과제들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AI·첨단산업 육성 등 중장기 산업 혁신 전략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창용 “추경으로 1%대 성장 가능해져… 관세협상 등 변수”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 성장률 상승 가능성 언급
추가 금리인하 시점에는 신중론
“가계부채 관리방안 효과 확인해야”

“지난해보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한국의 집값은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점에 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9조2000억원까지 증가하자 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시장은 금리인하 시기를 놓쳤으며 실기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실기론’으로 많이 혼났지만 (가계부채 변수를 고려해) 금리인하를 한 번 쉬고 잡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금융당국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안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의 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에 있고, 이 빚은 부동산에 대부분 쏠려 있다”면서 “이 이상 커질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수준에서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하시기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오는 10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예상보다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시차를 두고 한 두 달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금리인하의 폭이라든지 너무 빨리 일어나는 정도가 과도하게 돼서 이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는 앞으로 8월과 10월, 11월에 열린다.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확인 뒤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성장률이 1%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1.5%)치보다 0.7%포인트(p) 낮춘 0.8%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추경은 지금 1차 추경이 성장률을 0.1%p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고, 2차 추경도 GDP를 0.1%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1차 추경은 5월 전망에 포함돼 0.8%로 전망했기 때문에 2차 추

경이 더해지면 0.9%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성장률을 예측하기엔 불확실성이 많다. 이 총재는 “내수는 서서히 개선되고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게 나오고 있지만, 건설투자가 예측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일까지 유예된 미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정책도 우려 요소다. 이 총재는 “5월 전망치에서는 관세를 10%로 예상했는데, 오는 8월부터는 관세가 내릴지 올라갈 지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외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것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도 가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대 네번째
전년대비 중앙정부 채무 19.9조 증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나라살림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에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서 국채를 포함한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대비 19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279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 원으로 4조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16조7000억 원 개선된 35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실적은 3조2000억 원이 총지출에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8조7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2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조2000억 원 개선됐으나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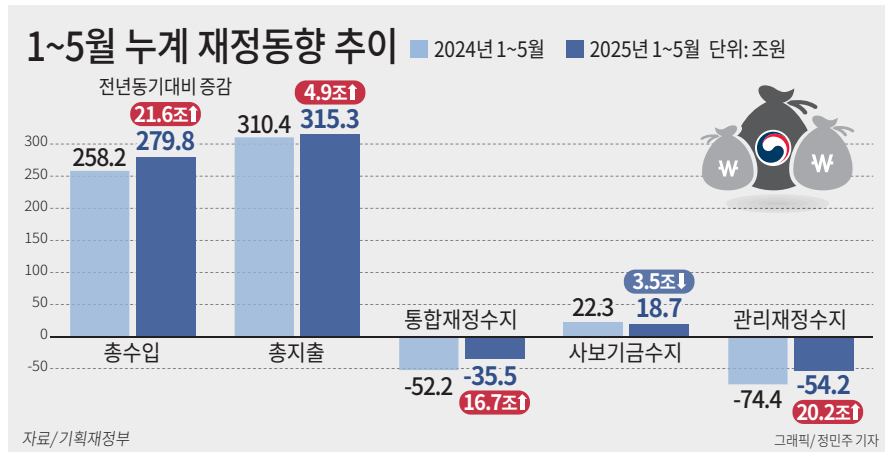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3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전년대비 6조2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 원으로 3조 6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90조 원으로 3조3000억 원 줄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 8000억 원으로 4월 말 기준보다 19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잔액은 1216조4000억 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채는 2차 추경이 통과되기 이전인 5월 누계 기준으로 1차 추경(13조 8000억 원)까지 반영됐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23조8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59.8%에 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함께 밝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변화
전력망 확충에서 시작됩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충분한 전력망 구축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한국전력

345kV 영흥송전선로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두 번 접는 스마트폰 연내 출시 AI 강화, 중저가 모델까지 확장”

노태문 삼성 사장 기자간담회
갤럭시 AI, 4억대 기기 탑재 예정
확장현실 헤드셋 하반기 출시 목표
AI 기능 기존 모델 업데이트 제공
AI 헬스케어 맞춤형 서비스 확장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과 확장현실(XR) 헤드셋을 출시한다. 모바일 인공지능(AI) 기능인 ‘갤럭시 AI’는 연내 4억대 기기에 탑재돼 AI 생태계 확장도 본격화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트라이폴드 제품은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올해 안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갤럭시 Z폴드7, Z플립7에 이어 트라이폴드폰 출시까지 공식화하면서 폼팩터 다변화를 통한 폴더블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트라이폴드폰을 양산한 기업은 중국 화웨이 유일하다.

노 사장은 “지난해 갤럭시 S25 언팩에서 실루엣을 공개했고, 올해 MWC에서는 시제품을 전시했다”며 “이제 완성도가 확보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본격 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품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콘셉트로는 ‘플렉스 G’와 ‘플렉스 S’ 등이 언급돼 왔다.

XR 헤드셋 역시 하반기 전략 제품으로 무게감이 크다. 삼성전자는 현재 구글, 퀄컴과 협력해 ‘프로젝트 무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폰’과 확장현실(XR) 헤드셋을 출시한다. 위 사진은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 직후 국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한’을 개발 중이다. 노 사장은 XR 안경 형태의 장비에 대해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태문 사장 “갤럭시 AI, 4억대로 확대”… 중저가 모델까지 적용

하드웨어 혁신에 더해 AI 중심의 사용 경험도 대거 확대된다. 노 사장은 “작년 2억대에 갤럭시 AI를 탑재했는데 올해는 2배 이상인 4억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 A 시리즈 등 중저가 모델까지도 하드웨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I 기능을 지원하며, 기존 모델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

이트를 통해 기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부터 갤럭시 AI 무료 제공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유료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노 사장은 “기본 기능에 한해 당분간 무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프리미엄 기능의 경우 파트너사와 유료화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사장은 “스마트폰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와 GPS 등 고성능 센서와 온디바이스 AI를 갖춘 기기”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중심의 컴퓨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기들은 이를 보완하는 동반자 역할로 진화해나갈 것이라 판단이다.

◆헬스케어까지 확장… ‘커넥티드 케어’ 본격화

디지털 헬스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한다. 최근 인수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젤스’를 기반으로 웨어러블 기기와 병원의료 데이터를 연계하는 ‘커넥티드 케어’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노 사장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관련해선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을 의식한 질문도 나왔다.

노 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글로벌 생산 거점을 운영해왔다”며 “다양한 거점을 활용한 공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두께·AI·주름까지 모두 달라졌다”

갤 플립7·폴드7 체험해보니

디자인 개선, AI 기능 실생활 적용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로 몰입감 증대

삼성전자가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7’과 ‘갤럭시 Z 폴드7’을 공개하며 폼팩터 혁신과 인공지능(AI) 기능 확대를 동시에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1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갤럭시 언팩 2025에서 공개한 신제품 갤럭시 Z 플립7과 갤럭시 Z 폴드7을 선보였다. 두 제품 모두 디자인과 사용성에서 전작과 확연히 달라졌고, 실용적인 인공지능(AI) 기능도 체감될 만큼 진화했다.

플립7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4.1인치로 커졌다. 밝기 최대 2600니트, 120헤르츠 주사율, 자동 밝기 조절 기능까지 더해져 야외 가독성이 크게 개선됐다. 기기를 펼치지 않고도 문자 회신, 일정 확인, 고화질 셀피 촬영은 물론, 음성으로 AI를 호출해 앱을 바로 조작할 수 있다.

접었을 때 두께는 13.7밀리미터, 무게는 188그램으로 작고 가볍다. 커버와 후면에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2가 적용돼 생활 스크래치와 충격에도 강하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화면 주름이다.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평탄하고 매끄러워 접히는 부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시각적·촉각적 이질감이 줄어든 덕분에 콘텐츠 감상이나 문서 작업의 몰입감도 한층 높아졌다.

AI 기능도 본격적으로 실사용 단계에 진입한 느낌이다. 커버 디스플레이에 대고 “강남역 근처 회식 장소 3곳 추천해줘”라고 말하자 음식점 리스트가 뜨고, 이어 “노트에 저장하고 캘린더에 추가해줘”라고 하니 관련 앱이 자동 실행됐다. 별도 앱을 일일이 띄우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정리할 수 있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폼팩터의 장점이 AI로 극대화되는 느낌이었다.

폴드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밀리



갤럭시 Z폴드7 시리즈 중 블루 셰도우 색상(왼쪽)과 갤럭시 Z플립7 시리즈 중 코랄레드 색상. /삼성전자

미터로, 갤럭시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볍다. 무게도 215그램으로 줄어갔다.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는 8.0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는 6.5인치로 전작 대비 11% 넓어졌으며, 초박막 강화유리(UTG)와 신규 힌지를 적용해 내구성도 높였다.

AI의 실감나는 폴드7에서 더 두드러졌다.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열고 “내 운동 기록을 참고해 운동과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AI가 적합한 제품을 보여주고, 이어 “노트에 저장해줘”라고 하면 자동으로 메모 앱이 실행돼 정보가 정리된다.

신제품은 오는 15일부터 국내 사전 판매를 시작하며, 오는 25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된다. 가격은 플립7이 148만5000원부터, 폴드7은 237만9300원부터다.

/이혜민 기자

“한국 경제, 향후 5년 L자·우하향 전망”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조사
저출생·고령화에 생산성 정체
반등보다 장기침체 가능성 주목
“성장동력 회복 시급” 한목소리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향후 5년간 한국 경제가 ‘L자형’ 또는 ‘우하향’ 추세를 보이며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는 2026~230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항목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대로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나타났다.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 답변 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새정부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통상전략은 1·2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 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

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새정부 5년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38.2%가 ‘AI 등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29.4%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기 때문’, 26.5%는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2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AI, 수장 교체 반복에 R&D 전략 ‘흔들’

26년 동안 8번의 정권 교체
낙하산 인사 논란, 기술주권 위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수장을 또다시 교체할 예정이다. 창사 26년 동안 8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8명의 사장이 그때마다 물러나 새롭게 임명됐다. 잦은 수장교체로 연구·개발(R&D)과 수출 전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은 관료·군 출신 ‘낙하산’ 인사가 선임될 경우 ‘전면 파업’을 공언하고 있어 구조적 악순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강구영 KAI 사장이 임기를 3개월여 남기고 지난 1일 물러나면서 차기 사장 인선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AI측은 ‘주요 사업 마무리 후 자진 용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

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결단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역대 KAI 사장단 임기 이력을 보면 새 정부 들어설 때 연임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999년 통합 법인 출범 이후 KAI 사장은 모두 8명으로 예외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임명됐다.

4대 사장인 김홍경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임기를 1년 남긴 채 퇴임했고, 하성용 전 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 검찰 수사를 받다 자진사퇴했다. 6대 사장인 김조원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친 뒤 물러났고, 7대 사장인 안현호 사장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연임하지 않고 물러났다. 이처럼 잦은 수장 교체는 연구·개발(R&D)과 수출 전략의 연속성을 흔들고 있다.

/이승용 기자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전 세계인을 연결하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글로벌 AI 기업이라는 원대한 꿈,
처음엔 투자 유치조차 쉽지 않았죠

그때 저희의 가능성을 보고
파트너십을 제안해 주신 KB 덕분에
글로벌 4,000여 개의 기업과 함께하게 된 지금,
전 세계 인구를 연결하는 최종 목표를 꿈꾸며
AI 스타트업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꿈꾸는 만큼 펼칠 수 있는 내일을 위해
KB금융그룹이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asic
KB금융그룹

샌드버드 대표 김동신 | 샌드버드코리아 대표 이상희 *샌드버드는 기업의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 KB 금융그룹

尹 재구속에 국민의힘 “국민께 송구”… 민주당 “사필귀정”

송언석 “전직 대통령 재구속 사태
수사·재판, 법·원칙따라 이뤄지길”

민주당 “철저한 수사·단죄의 시간
우리 국민,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

대통령실 입장 없어… 민생행보 몰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국민의힘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특검팀에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맞이한 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다. 우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재구속 소식 직후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 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같은당 배현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면서도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 다들 아실 테고, 실제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게) 1번으로 압수수색이 될 줄은 아마 다들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다”고 털어놔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

속에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이며,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알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외환죄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우리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러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대행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이제 다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변호인들을 시켜 관련자들을 압박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에게는 내란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

다. 이제 쫓수는 그만 부리고, 반성하며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내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란다. 내란죄 우두머리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특검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3특검법이 넘어온 후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지만, 그 후에는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3특검 임명장 수여식도 열지 않았다. 특검의 독립성과 더불어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 특검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도) 공식입장은 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됐을 뿐,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될 예정 아니냐”며 “(재구속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정청래·박찬대’ 2파전으로

당 대표 후보등록 서류 제출

정청래 “강력한 개혁 당 대표 되겠다”
박찬대 “李 대통령과 호흡 맞춰 일해”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정부 집권 초기 개혁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 대표 후보 등록을 10일 받았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차례로 여의도 중앙당사에 차례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다음달 선출될 당 대표는 임기 2년으로 이재명 정부 초기 사법·언론·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공전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임 당 대표가 임기를 잘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연임에 도전한다면, 23대 총선 공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를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선출한다. 오는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에서 권역별



박찬대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자 등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권역별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진행한다. 전당대회(제2차 임시당원대회)는 8월 2일 토요일에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대표 출마의 이유와 포부를 밝히는 온라인 국

민보고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럴 때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움은 제가 할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며 “언론·검찰·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의 민심을 호소하기 위해 ▲전당대회 1인1표제 실현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및 당원주권위원회 신설 ▲당원교육 강화 ▲당원 포상제 확대 및 당원 콘서트 실시 ▲당원 정책 박람회 연 1회 개최 등을 공약했다.

박찬대 의원도 후보 등록 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라

는 큰 나무 곁에서 원내대표로 개혁국회를 이끈 것은 저의 가장 큰 자량”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큰 숲에서 여당 대표로 가장 든든한 나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이재명 대통령 가장 곁에서 호흡을 맞춰 일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가 저 박찬대”라며 “더 강화된 당원주권도, 성공적인 국정운영 뒷받침도, 개혁 입법도, 내란 청산도, 지방선거 승리도 진짜는 박찬대”라고 말했다.

전날(9일) 여야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한 내란중식특별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국민 혈세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헌정을 파괴하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면서 “내란법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내 부고발자는 형사처벌을 감면토록 하고 반대로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영구히 제한하겠다”며 “사회적·정치적·법적으로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李 대통령 “폭염에 취약계층 고통 없도록 대책 신속집행”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났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117만 명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가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신속 집행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축 폐사 급증에 대해서도 “축산농가들의 고통이 큰데, 소방차나 가축방역 차량 등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

하게 실시하고, 발 빠른 재난안전 특고세 지원을 통해서 차광막이나 송풍 팬, 영양제 등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재난 대응팀을 구성해 달라”며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한다든지,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등의 대책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예진 기자

국회 첫 여성 기재위원장에 임이자 선출

(국민의힘 의원)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 보이겠다”

국회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3선·경북 상주시 문경시·사진)이 10일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이자 의원을 기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상정해 총 투표수 242표 중 210표 찬성으로 의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은 후임 기재위원장으로 임 의원을 내정했다.



임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오늘날 국회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치 본령인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기재위 최초 여성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ANGELINUS

우리은행 “中企 지원 플랫폼 ‘원비즈’로 포용 성장 이룰것”

금융권 최초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e-MP·SAFE정산
기업 규모·특성별 특화 서비스
비금융 솔루션 통해 경영난 해소

우리은행이 ‘종합 솔루션’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공략한다. 불경기 장기화와 영업 비용 증가로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만큼, 비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금리 및 한도 경쟁에 국한됐던 기존의 기업 금융 공급 경쟁에서도 앞서나간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은 10일 ‘포용적 성장 플랫폼과 금융복지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비즈플라자 ▲원비즈 e-MP ▲우리SAFE정산 등 기업 규모 및 특성별로 특화된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대한민국의 99%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중소기업은 공급망·결제망·금융 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힘들다”면서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 플라자’를 구축했다. 플랫폼을 통해 기업 규모나 업종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없이 상생하며 포용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비즈플라자, 중기 지원 플랫폼

지난 2022년 9월 출시된 ‘원비즈플라자’는 중소기업이 ▲구매 요청 및 견적·입찰 ▲발주 ▲검수 등 구매와 관련한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급망 플랫폼이다. 플랫폼에 가입한 기업 간 소통 및 거래를 지원하며,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해 기업 간 거래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노력도 최소화했다.

원비즈플라자는 기업 간 거래와 구매 업무 이외에도 전자계약, 재고관리, 세금 관리 등 회계 전산화를 지원하며, ESG, 기업리스크 등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한다.

회원을 위한 경쟁력 높은 금융상품도 공급한다.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 가입확인서를 기반으로 기보·신보와 연계한 전용 보증대출상품을 판매하며, 회원사에 한해 연 최대 4.2%의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적금 상품도 공급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7만 8000개였던 원비즈플라자 회원을 올해 안에 1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덕규 우리은행 플랫폼사업부 차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며 “금리 한도 경쟁에 치우쳤던 기업금융의 현 상황을 타파하고, 대면 영업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을 근간으로 지속 가능한 고객관리의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 원비즈e-MP, ‘기업간 상생’ 지원

우리은행이 지난달 공개한 ‘원비즈e

-MP’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에 신뢰도 높은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도 상거래 데이터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MP(Market Place) 플랫폼이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상거래 데이터 관리 및 기업 간 금융거래, 대출 실행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원비즈e-MP는 대기업·중견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중소기업이 별도의 담보 없이도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도 낮은 조달 비용으로 빠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제품 생산과 납품에만 집중할 수 있다.

최성민 우리은행 플랫폼 사업부 차장은 “원비즈 e-MP는 ‘기업 간에 공정과 상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플랫폼’이다”라면서 “우리은행은 원비즈e-MP를 통해 데이터와 금융을 연결하고, 기업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 우리SAFE정산, 리스크·비용 최소화
‘우리SAFE정산’은 우리은행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거래 플랫

폼(이커머스)의 결제 및 정산 구조를 최적화한 서비스다. 기존의 결제·지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정산 리스크를 예방하고, 오는 10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하게 될 추가 수수료 부담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리SAFE정산’은 기존의 결제·지급 구조를 ‘카드사→PG사→우리은행→판매자 정산·플랫폼 수수료 지급’으로 개편했다. PG사로부터 지급된 대금을 우리은행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관리하고, 거래 완료 시 플랫폼과 고객사와 대금과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는 구조다. 판매자는 미정산 사태를 예방할 수 있고, 플랫폼 기업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입점 기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최지우 우리은행 플랫폼사업부 차장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플랫폼과 고객사 사이에 연결을 맡게 될 전망인데, 새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이 마지막 단계에 끼어드는 만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우리SAFE정산’은 새 제도에에서도 플랫폼 입점사가 기존의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미정산의 위험도 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전세가 5억 빠진 메이플자이… 신축 전세 바닥 다지나

실입주 증가로 매물 부족
“더 이상 하락 여지 없다”

6·27 대출 규제로 출렁였던 신축 전세시장이 조정 국면을 지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동대문구 회경동 ‘회경자이 디센시아’ 등은 고점 대비 수 억원의 전세가가 하락한 이후 현재는 시장에 나온 물건 자체가 드물다. 전세가가 충분히 조정됐다는 인식과 함께 실입주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며, 하락 추세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자이 국평(전용 84㎡)의 전세가는 규제 전 20억원 안팎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14억5000만~15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

다. 약 4억~5억원 하락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매물이 거래되거나 실입주로 전환되면서 시장에 남아 있는 전세 물건이 많이 줄었다.

이곳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입주 초반엔 전세물건이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 빠르게 소화됐다”며 “남아 있는 일부 매물도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전세가가 떨어질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라고 덧붙였다.

입주장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하락세를 멈추게 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입주 초기에는 다수의 전세 물량이 공급되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합원 실입

주가 완료되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급감한다. 메이플자이 역시 8월 말 입주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전세 공급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회경자이 디센시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평 기준 전세가는 규제 발표 전 7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6억7000만~7억원으로 5000만원가량 낮아졌다.

전용 59㎡ 역시 5억7000만~6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3000만~4000만원 하락한 상태다. 이 단지는 실입주 비중이 높고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전세 물건은 상당히 줄은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입주 전부터

실거주 목적의 계약이 많았고 규제 발표 이후에도 실수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매물이 없다는 점에서 가격 하락세는 거의 멈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장기화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표적인 서민주거 정책으로, 장기적인 제한은 실수요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층을 위한 제도인데, 이를 막아버리면 실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조차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며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대로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렵고, 보완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정부 대출규제에도 서울 집값 23주째 ↑ 상승폭은 ‘반토막’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매수세가 주춤하며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매매수급지수도 하락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7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하며 2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성동구(0.89%→0.70%)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용산구(0.58%→0.37%)는 서빙고·이촌동, 마포구(0.85%→0.60%)는 성산·공덕동 주요단지, 광진구(0.49%→0.47%)는 광장·구의동, 종로구(0.24%→0.19%)는 창신·홍파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의 경우 송파구(0.75%→0.38%)는 잠실·가락동, 양천구(0.60%→0.55%)는 목·신정동, 서초구(0.65%→0.45%)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단지, 영등포구(0.66%→0.45%)는 신길·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59㎡는 이달 21억원에 거래돼 4개월 전 대비 2억5000만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 66㎡ 역시 7월 25억4600만원에 거래되며 3개월 전과 비교해 3억4600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를 기록해 전주(103.7)보다 내렸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많은 시장을 의미한다. /전지원 기자

KB금융,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감사패’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등
다양한 저출생 지원사업 운영

KB금융그룹은 지난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로부터 저출생 극복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KB금융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

를 만들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KB금융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135억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출산·육아 응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일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주형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가정의 양립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임직원 복지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출생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등 임직원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인 근무 환경 및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말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는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는 육아휴직 기간도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입학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는 등 꾸준히 양육친화적인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中 감산에 반덤핑 규제 강화… 철강사, 하반기 실적반등 예고

중국 정부, 철강산업 구조조정 추진
연간 생산량 5000만톤 감산할 듯
국내 철강 수급환경 개선 전망 우세

포스코, 멕시코·인니 등에 수출 확대
현대제철, 인도 거점 2호 활로 모색

국내 철강사들이 중국의 철강 감산 조치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저가 수입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강화도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중앙재경위원회를 통해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3월 양회에서 철강 감산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자국내 철강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중국의 철강 감산 규모가 지난해 전체 생산량 10억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의 5%에 해당하는 연간 500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중국발 저가제품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철강사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철강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874만톤으로 집계됐다. 다만 주요 수입국은 여전히 중국이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감산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경우에는 철강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열연강판 가격 또한 최근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톤당 가격은 83만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강판 가격을 비롯해 전반적인 수요 흐름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8월 중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예비 판정이 예정돼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반덤핑 제소와 관련해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한국에 열연강판을 판매했으며 일본 역시 내수 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정황이 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철강사들은 수출 확대 전략도 병행하는데 분주하다. 포스코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현지 기후에 맞는 차량용 강판, 건설용 후판, 열연강판, 전기강판 등의 수출을 늘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인도를 아시아 시장 공략 핵심 거점으로 삼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인도 푸네에서 연간

23만톤의 생산이 가능한 스틸서비스센터를 착공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50% 고율의 품목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 압박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아울러 글로벌 철강 전반의 수요 둔화와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감산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중국 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철강 수요가 뚜렷하게 반등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감산 조치는 철강 제품 공급 과잉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8월 중 나올 반덤핑 예비 제소 결과에 따라 하반기 시장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반기부터 점차 시장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온 ‘BMS’ 국제 사이버 보안 인증 획득

국내 차량용 제어기 중 최초 인증
해당제품 유럽 완성차 업체 공급

SK온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국내 최초로 국제 사이버 보안 인증(CSA, Cyber Security Assessment)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SK온은 글로벌 시험 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 보안 인증(CSA),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Func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레벨3 인증 등 총 두 건의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SK온 BMS는 국내 차량용 제어기 중 최초로 CSA 인증을 받으며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검증 받았다. CSA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를 기반으로 개발·검증된 제품에 부여되며, 이 인증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지난 9일 대전 SK온 배터리 연구원에서 사이버 보안 인증(CSA) 등 국제 인증 수여식 행사 후 박기수 SK온 연구개발(R&D) 본부장(오른쪽)과 노진표 TUV라인란드 코리아 기능 안전 및 사이버 보안 아시아 총괄 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인받았다.

SK온은 해당 BMS 제품을 배터리 셀, 모듈과 함께 유럽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실제 차량에 탑재될 이 BMS는 우수한 보안성과 공신력을 확

보함으로써 차량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

SK온은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국제 표준 ISO 26262 기반의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레벨3 인증도 획득하며 안전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FSMS 인증은 차량의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되며 5단계 가운데 BMS 분야에서 레벨3 인증을 취득한 것은 SK온이 처음이다. 레벨3은 설계부터 양산 이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체계를 유지하는 기업에 주어진다.

또한, SK온은 지난 5월, 국제 표준 ISO/SAE 21434 기반의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 레벨3 인증도 취득했다. CSMS 인증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전기·전자 부품의 사이버 보안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화로보틱스, 용접 자동화기술 개발 나서

네덜란드 조선소 로열 IHC와 MOU

한화로보틱스가 네덜란드 대표 조선소 로열 IHC(Royal IHC)와 손잡고 용접 자동화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로보틱스는 최근 로열 IHC와 협동로봇 기반 용접 자동화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 용접 자동화 기술 공동 개발 및 프로모션 ▲ 기술 및 인력 교류 ▲ 정보 및 자료 공유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로열 IHC는 매출 약 7000억원 규모

의 네덜란드 대표 조선소 중 하나로 준설선과 해군 정비지원선, 케이블 부설선 등 특수 목적 선박 건조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공정 혁신에 주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로봇·자동화 전시회 ‘오토매티카(Automatika) 2025’ 현장에서 체결됐다. 한화로보틱스는 전시에서 고가반하중 협동로봇 HCR-32를 처음 공개하는 등 기술력을 입증했다. 로열 IHC는 한화 부스에서 다양한 협동로봇 시연을 직접 확인한 뒤 이번 기술 협력을 결정했다. /이승용 기자

LX하우시스, 공동훈련센터 평가 ‘S등급’

‘LX지인 인테리어 아카데미’

LX하우시스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성과 평가에서 인테리어 업계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LX하우시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4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에서 시공인력 양성 교육시설인 ‘LX Z:IN(LX지인) 인테리어 아카데미’가 S등급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는 이번 평가에서 ▲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실습 중심 전문 인재 양성 체계 ▲교육 수료생 취업연계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특히, 신규 시공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해당 과정 수료생들을 협력사 및 대리점으로 취업 연계를 진행,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시공 협력사들의 고민 해결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는 연간 40여개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150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하는 전문 시공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교육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실행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NCSI 조사 총 16개 업종서 ‘1위’

LG전자가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총 16개 업종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10년 연속 가전·IT 부문 최다 수상이다.

올해 LG전자가 1위를 기록한 업종은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제습기,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TV, 로봇청소기, 무선청소기, 건조기, 정수기,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노트북PC, 가전구동 등 총 16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세탁기와 에어컨은 20년, 냉장고는 14년, 제습기는 11년, 김치냉장고는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 조사 업종으로 추가된 ‘가전구동’에서도 LG전자는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이혜민 기자 hyem@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난 9일 개막한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에 참가한 현대위아의 전시장 모습. /현대위아

현대위아, 글로벌 화포 제조사 비전 공개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참가

현대위아가 ‘글로벌 대구경 화포 제조사’ 도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에서 글로벌 화포 제조사로의 성장 방향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지난 9일부터 열린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은 방위사업청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위

산업 전시회로 오는 11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현대위아는 전날 ‘글로벌 대구경 화포 전문 제조 홍보회’를 열었다. 현대위아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화포 제조 능력과 관련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대구경 화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특히 현대위아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대구경 화포를 생산하며 쌓은 경험과 정밀 가공 역량을 살려 글로벌 화포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기술기반 스타트업, 수백억대 메가라운드 투자 유치 성과

하이퍼코퍼레이션

시리즈C 포함 1000억 돌파

에임드바이오

Pre-IPO 성공... 511억 조달

콜로세움코퍼레이션

시리즈B 통해 270억 유치



하이퍼코퍼레이션 CI



에임드바이오 CI

함께 신규 투자자로부터도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며 누적 투자액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회사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 및 제품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이 보유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국내 대형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 기존의 단순 진단 알고리즘과 달리 실시간 연동과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두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 데이터와 연계한 알고리즘 성능 향상, 다기관 적용 사례, 법적 인증 취득 등을 통해 사업 확장성과 신뢰도를 높여온 점이 대형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AI 기반 신약개발 스타트업 에임드바이오도 올해 상반기 Pre-IPO 라운드를 통해 51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해 시리즈B 라운드에서는 4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총 누적 투자액은 900억 원에 이른다.

에임드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약물 설계 알고리즘을 통해 후보물질을 자동 도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미국 FDA 임상1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투자에는 기존 VC뿐 아니라 해외 바이오 전문 펀드와 제약사 전략적 투자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내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 준비에 들어갔다.

VC 업계 관계자는 “에임드바이오는 단순히 AI로 신약을 설계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임상 진입과 파트너링까지 수행 중인 몇 안 되는 실전형 닥테크 바이오 스타트업”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입증했기에 Pre-IPO 투자 유치가 가능했던 사례”라고 평가했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AI 기반 물

류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올해 6월 시리즈B 라운드를 통해 270억 원을 유치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산업은행, 대신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스트롱벤처스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콜로세움은 AI로 물류창고 입점부터 재고 예측, 출고 계획까지 자동화하는 B2B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여 개 이커머스 기업과 풀필먼트 연동 계약을 맺은 상태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동남아 시장 진출 및 플랫폼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VC 업계는 이 같은 일련의 메가라운드 성사 사례를 두고 올해 하반기에도 대형 투자는 이어지겠지만, 대상 기업은 더 엄격하게 걸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단기 테마 위주로 자금을 끌어모은 일부 스타트업이 정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반면, 실적과 기술, 글로벌 진출 전략을 갖춘 스타트업에는 여전히 자금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생협력존'./한화에어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방산 협력 생태계 조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 대전’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 등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12곳과 함께 ‘상생협력존’을 만들어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위사업청과 경남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의 연계 행사로 오는 11일까지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생협력존에 협력업체가 참여한 대표 무기체계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 안티드론 무기체계인 비호복합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 등을 선보였다.

협력업체와의 부품 국산화 및 해외 진출 사례 등도 소개하며 향후에도 단순 부품 공급 관계를 넘어 공동 기술개발과 해외진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기부 산하기관장들, 현장 중심 정책지원 ‘구슬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소통 간담회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점검

김영신 기정원장 민테크 본사 방문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이 10일 오후 경기 양주 신성씨앤에스에서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중진공

강 이사장은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날 대전본부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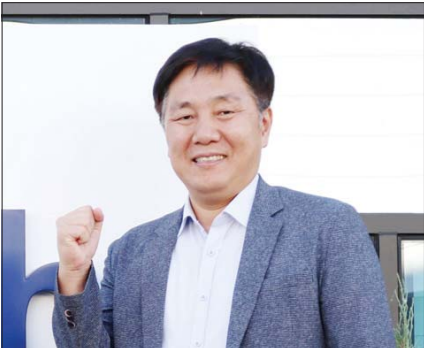
박 이사장은 사전점검에서 접수 시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9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 /소진공

스템 시연을 지켜보고 시스템 및 운영 현황, 5부제 신청 방식에 대한 안내 대응체계, 민원 대응 시나리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박 이사장은 “전기요금 특별지원, 배달·택배비 지원과 같이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도 시작부터 꼼꼼히 점검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민테크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정원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도 같은 날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검사·진단 전문기업으로 대전에 본사가 있는 민테크를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김 원장은 “민테크의 성장을 보며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지원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57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AI·딥테크분야 기업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차 정기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원을 출자하고, 약 5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NEXT UNICORN Project’의 일환으로, AI·딥테크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각각 투자해 총 3000억원을 출자하고, 55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창업한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AI·딥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

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육성한 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집중 투자해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도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이는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중기부는 1차 정기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초기’ 분야에 총 995억원을 출자하고

1699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이 중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67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벤처투자 확대가 필수”라며 “2차 추경을 통해 첫 발을 내딛던 ‘NEXT UNICORN Project’가 빠르게 현장 투자로 이어지도록 출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 모태펀드를 통한 AI·딥테크분야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코트라

‘K-Med 로드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오는 11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2025 베트남 K-Med 엑스포’와 연계해 ‘K-Med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기기의 동남아 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KOTRA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코웨이

‘아이콘 스탠다드’ 출시

코웨이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얼음 용량과 위생, 편의 기능 등 얼음정수기의 핵심 요소를 한층 강화한 신제품 ‘아이콘 얼음정수기 스탠다드’ (사진)를 출시했다.

10일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 ‘아이콘 얼음정수기 스탠다드’는 자사 가정용 얼음정수기 중 최대 용량인 1.1kg의 얼음 저장고를 탑재했다.

또 코웨이의 특허 기술인 ‘듀얼 패속 제빙 기술’을 적용해 하루 최대 600개의 얼음을 만들어 여름철에도 부족함이 사용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www.dseshop.co.kr


동성제약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브에이트 블랙샴푸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림,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커버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
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구입 문의 **080-854-0082**

겉모습만 ‘韓 AI’… “해외 의존 벗어난 독자적 모델 필요”

SKT·KT, LLM 오픈소스 공개
통신사 주도 AI 주권확보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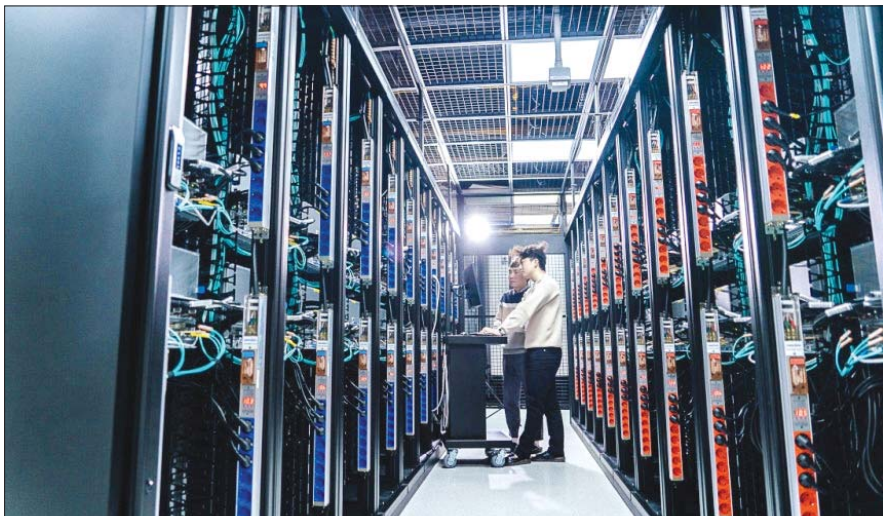
공개 모델, 외산오픈소스 활용
독립적 파운데이션 모델 아나
핵심 알고리즘 등 해외 기반 ‘한계’

SK텔레콤과 KT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소버린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K-AI 대표 모델’ 공모와 맞물려 통신사 주도의 AI 주권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두 회사 모두 ‘한국적 AI’를 전면에 내세우며 생태계 확산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핵심 파운데이션 모델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적 AI’라는 구호와 달리 기술 주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과 KT가 ‘허깅페이스(Hugging Face)’를 통해 자체 개발 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자사 LLM ‘A.X (에이닷 엑스) 4.0’을 글로벌 AI 오픈소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 엑스 4.0’의 학습을 진행한 SK텔레콤 슈퍼컴퓨터 ‘타이탄’을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SK텔레콤

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공개된 모델은 720억 매개변수 규모의 표준형과 70억 파라미터의 경량형 2종이다. 이 모델은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LLM ‘Qwen 2.5’를 기반으로 대규모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 제작됐다. SKT는 “GPT-4o 대비 한국어 처리 효율이 약 33% 높다”며, 향후 수학·코딩 능력을 강화한 추론형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KT도 자체 개발한 ‘믿음 2.0’을 공개했다. ‘믿음’ 시리즈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맥락에 최적화된 LLM을 지향하며, 이번에 공개된 2.0 모델은 115억·23억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소형 모델로 구성된다.

KT는 “저작권 이슈가 없는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됐다”고 밝혔으며, 향후 GPT-4 기반의 협업 모델과 고성능 버전인 ‘믿음 프로’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LLM 오픈소스 공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1일까지 공모 중인 ‘K-AI 대표 모델’ 선정 사업과도 관

련이 깊다. 대표 모델로 선정된 기업은 ‘K-AI’ 명칭 사용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통신사 외에도 네이버,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코난테크놀로지 등이 참여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모델 대부분이 ‘외산 기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한 파생형’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다. SK텔레콤의 A.X 4.0은 알리바바의 Qwen 2.5를 기반으로 했고, KT 역시 GPT-4 기반 협업 모델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어 최적화’에 초점을 둔 파인튜닝 모델에 가까워, 근본적으로 독립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자립의 문제를 넘어, AI 주권을 내세우는 ‘소버린 AI’라는 개념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다. ‘한국적 AI’를 외치지만, 핵심 알고리즘과 구조는 여전히 해외 오픈모델에 의존하는 구조다. 기술의 뼈대를 설계하지 못한 채 피부에만 코팅 특색을 입히는 식이다. 소위 ‘데이터 주권’과 ‘기술 독립’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로 자체 설계·학습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향후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픈소스 기반 모델은 저변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출처가 외국 기업일 경우 업데이트·개방 여부, 라이선스 변경 등 핵심 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결국, 우리가 쌓는 AI 생태계는 언제든 ‘상위 모델의 변심’에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 위에 서 있는 셈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소버린 AI’는 단순히 한국어 지원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주권 확보와 독립적 기술 생태계 조성을 핵심으로 삼는다. 하지만 알리바바 등 해외 오픈모델 기반에 의존한 현 방식은 결국 해외 기술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남는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오픈소스를 통한 기술 공유는 국내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진정한 소버린 AI를 위해서는 해외 기술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에 대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코히어, 추론형 LLM 공동개발

고객사에 온프레미스 방식 제공 예정
압축기술 통해 GPU 2장으로 구동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 LG CNS는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코히어(Cohere)와 손잡고 1110억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추론형 LLM(거대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LG CNS는 금융, 공공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국내 고객들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코히어와 협력해 추론형 LLM을 만들었다. 추론형 LLM은 AI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여러 변수를 고려한 논리적인 해답을 도출하는 모델

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로 꼽힌다.

LG CNS는 코히어와 함께 개발한 초대형·경량형 2종의 LLM과 국내 대표 AI 모델인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 등 다양한 거대언어모델 라인업을 통해 고객이 맞춤형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LLM을 온프레미스(자체 구축형) 방식으로 제공해 고객들이 민감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없이도 자체 인프라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사가 이번에 내놓은 LLM은 모델 압축 기술을 통해 2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만으로 구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객사들은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LLM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확보하고, 데이터와 인프라 통제력을 갖춘 ‘소버린(주권형) AI’를 실현할 수 있다.

양사의 LLM은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는 물론 히브리어·페르시아어 등 소수 언어를 포함해 총 23개 언어를 지원한다. 이 중, 한국어 평가테스트(KM MLU)에서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LLM 중 현존 최고 수준의 성능을 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 AI 스타트업과 동반성장 협력

50억 규모 전용 펀드 조성

LG유플러스가 기술력을 갖춘 국내 초기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기업-스타트업 간 AI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단순한 재무적 지원을 넘어, 실제 협업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딥테크 전문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4개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AI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쉬프트(shift)’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쉬프트’는 유망한 초기 AI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 협업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들과 실증(PoC), 기술 연계, 사업화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력에 나선다.

이번에 투자를 유지한 기업은 ▲페어리 ▲르몽 ▲테크노매트릭스 ▲에임인텔리전스 등 4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쉬프트 1기를 통해 선발됐다. 페어리는 실시간 사용자 정보 추출 기술을 개발 중이며, 르몽은 소상공인 대상 영업·마케팅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테크노매트릭스는 AI 모델 재학습 자동화 기술을, 에임인텔리전스는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을 각각 개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들 기업과의 PoC를 통해 기술 실증과 사업성 검증을 마쳤으며, 향후 연구·개발(R&D) 자원과 기술



김지훈 LG유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상무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진행한 성과 공유회 ‘쉬프트 업 데이(shift up Day)’에서 발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인프라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쉬프트를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 정부, 대기업, 국내외 파트너 간 연결을 강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사업 검증, 상용화, R&D,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형태다.

/김서현 기자

KT-트림블, 정밀측위 통합 서비스 제공

5G·LTE 통신 인프라 결합

KT가 트림블과 협력해 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정밀측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일 밝혔다.

K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정밀측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기술 연구와 함께 파트너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트림블은 미국에 위치한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정밀측위 등 다양한 위치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 중이다.

KT와 트림블은 위성 기반의 위치항법 시스템(GNSS)의 데이터 오차를 보정하는 트림블 RTX 패스트에 5G 및 LTE 통신 인프라를 결합해 고정밀 측위 서비스로 고도화했다.

/김서현 기자

SKB, 소상공인 맞춤형 인터넷 상품 선택

‘든든 인터넷’ 피해 보상 혜택 추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인터넷 상품 ‘든든 인터넷’을 10일 출시했다. 인터넷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매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 혜택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든든 인터넷’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는 피싱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금전 피해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가(Giga) 인터넷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매장 내 POS, 카드 단말기, PC, 노트북,

TV 등의 고장 수리에 대해 1회 최대 5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채감 혜택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제조업체는 PC·노트북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든든 인터넷’ 요금제는 총 6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장 환경에 따라 인터넷 속도(100M/500M/1G)와 와이파이 또는 증폭기(윈즈)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 혜택이 포함된 ‘든든 기기라이트’ 요금제는 3년 약정 기준 월 3만4100원(부가세 포함)이며, IPTV나 가족 결합시 최대 월 2만31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시총 4조 달러 터치… 엔비디아, 당분간 상승세 이어질 것

엔비디아, 초거대 AI 최대 수혜주 1년여 만에 3조 달러→4조 달러로 1분기 매출 69% 늘어 440.6억 달러 전문가 “2028년 시총 6억 달러 도달”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2조원)를 ‘터치’했다. 9일(이하 현지 시간) 엔비디아는 장 중 한때 주당 164.42달러까지 오르며 시총도 4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13개 이상 합친 것과 맞먹는다. 이날 증가는 163달러(시총 3조9720억달러)로 마쳤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달리는 기관차에 비유한다.

◆AI열풍 타고 시총 4조달러

현재 전 세계에서 시총이 3조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애플과 MS, 엔비디아 단 3곳뿐이다. 그중 세 번째로 3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엔비디아는 2022년 말 챗GPT가 촉발한 초거대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했다. 2023년 6월 종가 기준 시총 1



ChatGPT로 생성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미지.

조 달러를 넘어선 것이 시작이었다. 2024년 2월 2조 달러, 그해 6월 3조달러를 넘어섰고 이제 다시 1년여 만에 첫 4조 달러에 진입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달러를 넘어선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가치는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에 포함된 가장

작은 216개 기업의 시총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웨드부시 증권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와 기술 산업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며 AI 혁명이 다음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면서 “AI를 움직이는 칩은 바로 엔비디아”라고 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치솟은 것은 AI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전 산업 영역으로 AI가 확산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AI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로 꼽힌다. 앞서 미 정부가 4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반도체 ‘H20’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업황이 좋다.

엔비디아는 5월 28일 올해 1분기(2~4월) 매출이 전년 대비 69% 증가한 440억6000만 달러(약 59조8000억 원)라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433억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였다. 올해 들어 MS와 메타, 아마존,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잇달아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특히 최근 펠쳐진 신고가 랠리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6월 25일 주총회에서 “엔비디아에는 여러 성장 기회가 있다. 그중 AI와 로보틱스가 가장 크고, 이는 수조 달러 규모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황 CEO는 “자율주행차가 첫 상업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AI 칩에 이어 로보틱스 시장에서도 강자로 자리 잡으리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팔까, 더 살까”, 서학개미의 행복한 고민

직장인 이모(38)씨는 엔비디아 주가가 치솟자, 고민이 생겼다. 차익을 실현해야 할지, 추가 매수에 나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엔비디아 주식에 5000만원쯤 투자해 30%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AI, 로봇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샀는데 올해 수익률이 10%를 넘는다. 이씨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반도체, AI, 로봇 분야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미국 주식 투자가 필수인데 엔비

디아 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 부담스럽다”면서 “주변에서 하나둘 차익 실현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적당한 시기를 보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유명 투자사 루프캐피탈은 목표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아난다바루아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생성형 AI의 다음 ‘황금물결’에 진입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예상보다 강한 수요 증가의 최전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엔비디아는 여전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가격 결정력과 수익률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댄 데이비드워츠 폴렌캐피털매니지먼트 최고정보책임자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매우 낙관적인 가정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수요 전망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실적+정책 수혜 기대감… 증권株 ‘승승장구’

KRX 증권지수 이번주 15% 급상승 성장·주주환원에 상승밸리 장기화

새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증권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증권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4% 상승한 1517.05를 기록했다. 이번 주 들어서만 14.62% 급등했다. KRX 증권지수는 국내 증시에 상장한 주요 증권사 11곳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부국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날 신영증권도 17.18%, 대신증권은 11.03% 오르면서 10%대 강세를 보였다. 세 곳 모두 자사주 비율이 ▲부국증권 42.73% ▲신영증권 51.28% ▲대신증권 25.1% 등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원칙적

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는 증시 활성화 위한 정책 기대감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며 사흘 연속 랠리를 펼쳤고, 코스피는 3100선에 안착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증권, 보험, 지주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업종과 종목들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업종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가 증시 부양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증권업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지난달 20일 3000선을 돌파한 이후 이달 들어서는 31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코스피가 31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이후 3년 9개월만으로,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만 연고점을 세 번 경신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증권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9배에 도달했으며,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유동성 장세에서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수익 증가와 상법개정안 등 주주환원 강화 법안 시행 시 여력을 보유한 대형사들의 추가 주주가치제고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성장과 주주환원이 동시에 진행됨에 힘입어 상승밸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 증시의 열기가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국내 빅5 증권사(자기자본 기준 상위 5개사)의 올해 커버리지 합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1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지난 6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코스콤 임직원들이 묘역 정화 활동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코스콤, 현충원 묘역 정화 사회공헌 실시

임직원 30여명 참여 잡초제거 등 작업

코스콤은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6월 25일에 진행된 묘역 정화 사회공헌활동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다. 코스콤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묘비 닦기, 잡초 제거, 주변 환경 정비 등 묘역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묵념 시간과 역사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은 매년 6월, 코스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코스콤은 매년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비롯해 관내 유관 기업 직원들과 함께 현충원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외국인, 지난달 주식·채권 6.7조 ‘순매수’

금감원, 외국인 주식 보유액 863.4조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6월 국내 상장 증권을 총 6조70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에서 3조760억원, 상장채권에서 3조6240억원을 각각 순투자하며 ‘바이 코리아’ 흐름을 이어갔다. 주식은 두 달 연속, 채권은 다섯 달 연속 순매수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122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460억원을 순매도했다. 5월(2조 917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순매수 흐름이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863조4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4%를 차지하며, 전월 대비 114조 6000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주에서 3조5000억원, 유럽에서 1조400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1조2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조4000억원으로 순매수 규모 1위였고, 아일랜드

(1조7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순매도국은 노르웨이(1조2000억원), 싱가포르(1조 1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미국(347조9000억원)이 전체의 40.3%로 가장 컸으며, 이어 유럽(268조 4000억원), 아시아(123조8000억원), 중동(12조9000억원) 순이었다. 채권 투자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졌다. 6월 외국인은 상장채권을 17조7150억원 순매수하고, 14조91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순투자 규모는 3조624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304조 4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이는 전체 상장잔액의 11.3%다. /허정윤 기자

한꿈학교에 ‘스마트 도서관’ 설치 지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새로 이전하는 한꿈학교의 신고사에 ‘희망 Dream 스마트 도서관’ 설치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한국증권금융’이 출연해 2013년 11월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과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이

사는장은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꿈학교에서 개최된 ‘한꿈학교 신고사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개소식에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 이재강 경기 의정부시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한꿈학교 교사(校舍)의 지상이전을 축하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한꿈학교의 신고사에 ‘희망 Dream 스마트 도서관’ 설치와 ICT 기자재·미디어 시스템 및 북카페 조성 등을 후원했다.

/신하은 기자

올 여름 폭염에 ‘전력수요’ 급등 예비자원·현장점검 전방위 대응

산업부 ‘전력수급 대책’ 발표
이달 전력사용량 95.7GW 기록
작년 여름 ‘최고치’ 육박한 수준
정부, 비상대응·예비력 등 확보
전기요금 완화·취약계층 지원도

역대급 이른 무더위로 7월 초부터 전력수요가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가 97.8기가와트(GW)까지 증가하더라도 8.8GW의 예비력을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태풍, 폭우, 설비고장 등 돌발변수에 대비해 비상 예비자원 8.7GW도 별도로 준비한 상태다.

전력 수요는 이미 ‘역대급’ 기록을 잇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산업부는 올 여름 최대수요가 작년 최고기록(97.1GW, 2024년 8월 20일)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7월 1~7일 평균기온은 28.2℃로, 종전 최고였던 2022년 7월(27.1℃)을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8일 37.8℃를 기록하며 작년 최고기온(36.4℃)을 이미 넘었다.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가 95.7GW를 기록하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산업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노후 설비를 사전에 교체하는 등 전력공급능력을 지난해 대비 1.2GW 증가한 106.6GW까지 확보했다.

또 배수시설 보수, 산사태 취약지역 철타점검, 노후선로 교체 등 설비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산업부와 전력유관기관은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72일간 전력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위기상황 시를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감축(DR), 전압 하향조정, 긴급 수요조정 등 4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7.8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체적인 부담을 낮췄다. 기존 1구간(0~200kWh)은 300kWh까지, 2구간(200~400kWh)은 450kWh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4인 가구 7.8월 평균 406키로와트시(kWh) 사용시 기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7월 1일부터 연간 바우처 전액(최대 70만1300원)을 선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2만원까지 확대했다. 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가구에 문자, 카카오톡 안내를 보내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도 강화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롯데컬처-메가박스 합병 사전협의 돌입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등 면밀 심사”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2위와 3위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심사에 앞선 사전협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대기업 간 첫 사전협의 사례로 규정하고, 극장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제한 가능성 등 전방위 심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10일 “지난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 사전협의를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시장확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우려 등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시네마와 영화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중앙은 메가박스극장과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를 각각 운영 중이다. 양사는 영화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합병 이후 한 법인은 소멸하고 하나

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계획이다. 다만, 어느 쪽이 존속법인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은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국내 극장산업은 현재 1위 CJ CGV와 롯데·메가박스 통합 법인 간 양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간 CGV가 압도적 1위, 롯데와 메가박스가 각각 2·3위로 점유율을 나눠 갖는 ‘1강 2중’ 구도였지만, 이번 결합으로 단일 법인이 탄생하면 업계 점유율이 수직 상승하게 된다.

이번 사전협의는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 이후 대기업 간 M&A건으로는 첫 사례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기업이 공정위와 주요 심사 쟁점에 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사업주, 변제금 내면 신용제재 유예”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에 앞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고용부는 오는 7월 14일~8월 31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진 납부를 통해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주들에게 안내에 나선다.

신용제재는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주 가운데 1년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거나, 대출 이자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들에게 변제금 납입 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들이 자진 납부 기간을 활용해 변제금을 정리하고 신용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폭염 취약현장에 350억 긴급 투입

정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소규모 사업장에 냉방장비 지원
농촌 왕진버스·콜센터도 운영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여름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특히,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 대비 1.8배 늘었다.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뉴시스

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한다. 또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해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해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

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대비 급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하에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등),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 원)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체 시원한 물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쌀 가공식품 일본 수출 확대 추진

도쿄 식품박람회 참가

농협 경제지주가 쌀·쌀가공식품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출장단을 도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10일 농협에 따르면 담당본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출장단은 현지에서 ▲쌀 가격대 ▲한국산 쌀 유통 여부 ▲소비자 반응 등을 파악하고, 일본 외식업체 ‘이조원’과 농협 쌀 수출 확대방안 및 현지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출장단은 또 9일 도쿄에서 개막한 식품박람회(JFEX)를 찾아 즉석밥, 떡, 디저트 등 일본 내 쌀 가공식품 소비동향 파악에도 나섰다. JFEX는 일본 농림수

산성과 일본무역진흥기구가 후원하는 B2B 박람회로, 올해 행사에는 식품회사 700여 곳의 참석이 예정돼 있고 2만 5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대 일본시장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해 쌀·쌀 가공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일 품목지원본부장은 “전통적인 쌀 소비국인 일본에서 간편식, 소용량 등의 식품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국산 쌀·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이진숙, 논문표절 논란 확산… 자녀 조기유학 위법은 ‘인정’

〈부총리·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자 논문과 내용 유사·오탈자 일치
범학계 국민검증단, 14일 결과 발표
자녀 유학 때 ‘국외유학규정’ 위반
이 후보자 “당시 법령 인지 못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충남대 전 총장)를 둘러싼 논란이 논문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서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질 검증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발표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는 한 달 앞서 발표된 제자 김모 씨의 석사 학위논문과 내용이 상당 부분 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해당 논문은 제자 논문의 사진, 표, 문장 등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한 수준으로, 김 의원은 지난 9일 “정상 반, 표절 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

는 비문까지 그대로 실렸다”며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정황을 지적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14개

전국 교수·학술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오는 14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낼 당시 ‘국외유학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은 2007년 중학교 3학년을 중퇴한 뒤 미국 고등학교 9학년에 조기 유학을 떠났으며, 이는 당시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면 조기 유학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 후보자 부부는 당시 충남대와 청주대에서 각각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당시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

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밝혔다.

교육계와 정치권 내부에서도 후보자 자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만큼은 아니다”라는 인식 속에 “경계에 있는 사안인 만큼 청문회에서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에 자녀 조기유학 문제까지 겹쳤다”며 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대학 총장과 교수들 앞에서 어떤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무전공학과, 경쟁률 ‘높고’ 입시결과는 ‘중간’

경쟁률, 평균 상위 25.92% 해당
입시결과, 상위 누적 평균 44.84%
자연계 수험생 지원 비중 높아

전공자유선택제(무전공)가 확대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수시에서 전 모집단위 선택이 가능한 유형1 무전공학과의 경쟁률은 일반학과보다 높았다. 또 입시결과는 대학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학사는 10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의 수시 교과·종합전형 무전공학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무전공학과는 통상 일반 학과보다 선발 인원이 많아 경쟁률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지원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진학사 분석에 따르면, 15개 대학 무전공학과와 일반학과 경쟁률 순위는 해당 대학 전체 모집단위 중 평균 상위 25.92%에

해당했다.

반면, 입시결과는 경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대학별 평균에 가까운 중간권 수준을 보였다. 15개 대학의 무전공학과 입결 순위는 전체 모집단위 기준 상위 누적 평균 44.84%로 집계됐다.

무전공학과와 일반학과 운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교과), 인하대 등은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선발을 실시했고,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아주대, 한양대(종합) 등은 인문·자연 계열로 나눠 선발했다.

경쟁률을 기준으로 보면, 통합 선발 무전공학과는 대학 내 평균 상위 21.76%로 나타나 계열 구분 선발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무전공(자연)의 경우 계열 내 평균 상위 22.93%로, 무전공(인문)의 35.40%보다 높았고, 통합 선발에서도 자연계 수험생 지원 비중이 높은 경향

을 보였다.

이는 무전공 입학생이 향후 첨단학과나 인공지능 전공 진입을 노리고 지원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경쟁률과 달리 입시결과는 계열별 차이를 보였다. 무전공(통합)의 입결 순위는 평균 상위 40.52%, 무전공(인문)은 40.92%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무전공(자연)은 평균 55.4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계열 내에서 공대, 컴퓨터 관련 학과의 입결 상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무전공(자연)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무전공학과는 아직 도입 초기라 누적 분석이 어려운 만큼,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는 전형 방법과 선발 인원을 점검하고, 향후 희망 전공 진입 가능성까지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이달 재산세 2.3조 부과… 8.6% ↑

〈전년 대비〉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 발송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원(8.6%) 증가한 2조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원, 건축물 6529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원, 송파구 23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6만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시장군수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정분담 완화 요청”

경기도에 공동건의문 전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시·군 재정분담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의 지원금을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참석자 단체사진. /남양주시

사업 총예산은 13조 9000억 원으로, 이 중 1조 7000억 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다.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불가피

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소비쿠폰의 지급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도 고려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건의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역대급 폭염에 냉방기기 전기 화재 주의보

7~8월 ‘전기적 요인’ 화재 최다 발생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예고된 가운데 에어컨·선풍기 등 사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는 7~8월 냉방기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혁민)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8월에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7월 924건, 8월 919건이 발생, 전체 총 7036건 중 26.2%(1843건)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시는 지난 5년간 전체 화재 건수 총 2만 7760건 중 7~8월 일어난 화재는 16.2%(4479건) 수준으로 겨울철에 비해선 적지만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화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냉방

기기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냉방기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은 총 191건으로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72건(37.7%) ▲미확인 단락 41건(21.5%) ▲전선 등의 절연 성능 저하 40건(20.9%) 등 순으로 많았다.

또 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총 1만 586건 중에서 7월이 1002건(9.5%)으로 가장 많았고, 8월(927건, 8.8%)도 겨울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각 가정에서 사용 중인 콘센트·전선 등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가정 화재의 원인이 냉방기와 연결된 낡은 멀티탭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만큼 냉방기기 멀티탭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등 여름철 냉방기기 및 전기 사용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매장서 직접 보고, 앱으로 주문… 유통가, 온·오프라인 강화

신세계百貨 자사 앱에 ‘비온드 신세계’ 고객들 편의성 위해 결제기능 탑재

신세계사이먼 ‘아울렛 몰’ 리뉴얼 롯데마트 온라인 앱 ‘제타’ 서비스

오프라인 유통가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고객 모두 잡기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은 체험형, 온라인은 구매 편의 공간으로 구성해, 온·오프라인 고객층을 한꺼번에 잡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비온드 신세계’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커머스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결제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이커머스 서비스 확장에 나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기존 백화점 앱에서



Chat GPT가 생성한 온라인 몰 관련 이미지.

는 상품만 고를 수 있었고, 결제는 신세계 이커머스 자회사인 쓱닷컴 앱에서 따로 이뤄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백화점 앱 안에서 자체 결제 기능을 탑재한 것”이라며 “서버 백단에서

는 그대로 SSG닷컴에서 결제가 되고, 배송도 SSG닷컴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에는 신세계 그룹 내 아울렛 매장 운영 법인인 신세계사이먼이 자사 온라인 몰 ‘신세계 아울렛 몰’을 전면 리뉴얼했다. 명칭을 기존 ‘샵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신세계 아울렛 몰’로 변경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신세계 아울렛 앱을 통해서만 접속 가능한 회원 전용 몰이었으나, 이번 리뉴얼을 통해 포털 검색이 가능한 일반 몰로 전환됐다.

또, 온라인 입점 브랜드도 기존 약 270개에서 400여 개로 확장했다. 기존 패션·잡화 상품군에 라이프 스타일 상품군을 추가해 온라인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향후 신세

계 아울렛 몰 특화 브랜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온·오프라인을 이어주는 특화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온라인 소비자 추세가 짙어지자 오프라인 기업이 이커머스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체험형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온라인몰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온·오프라인 고객 모두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 그룹 외에도 롯데마이크머스 강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마트는 지난 4월 롯데마트 그로서리 전용 애플리케이션 ‘롯데마트 제타’를 선보였다. 롯데마트 제타는 롯데와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키도와 협업해 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온라인 앱이다.

롯데마트는 최근에도 온라인 역량 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4년 만에 ‘그랑그로서리 구리점’을 새로 개점하면서, “이번 점포를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 롯데마트 제타의 경기 동북부 핵심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미 온라인 시장이 포화 상태인만큼,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온라인 몰 강화 전략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여기에 쿠팡·네이버 양강구도도 견고하다. 오프라인 기업들의 온라인 사업 강화가 기존 자사 고객들의 쇼핑 선택지를 넓힐 수는 있겠으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홈쇼핑, 청년 해외시장 탐방·인재 발굴

‘대학생 해외연수단’ 프로그램 진행 30여명 학생 中 항저우서 현지조사

롯데홈쇼핑이 방송, 유통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해외연수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생 해외 연수단은 롯데홈쇼핑이 한국유통학회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 해외시장 탐방, 전문 교수진 강의 등 대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경험을 제공한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30명의 해외 연수단 학생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항저우를 방문했다. 유통 산업 특강을 듣고, 잡화시장 ‘이우 국제상무성’을 탐방하며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콘텐츠 분야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최



대학생 해외연수단 학생들이 중국 항저우 ‘이우시장’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롯데홈쇼핑

근 ‘크리에이터 클래스 4기’ 수료생 중 우수 인원 12명을 선발해 일본 도쿄로 해외연수를 지원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일본 콘텐츠 전시회인 ‘콘텐츠 도쿄 2025’에 참관했으며, 연수 기간 중 롯데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엘라이브’에서 일본 상품을 현지 생방송으로 판매해 보는 실습도 진행했다.

롯데홈쇼핑 이동규 커뮤니케이션부 문장은 “롯데홈쇼핑은 단순한 해외연수를 넘어, 청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실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송과 유통 산업을 이끌 차세대 리더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세계百貨, 냉감 침구·의류 프로모션

강남점서 ‘바캉스 연합 기획전’

신세계백화점이 무더위에 여름철 냉감소재 상품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 참여 브랜드는 오르시페, 세사, 코지네스트, 클레르하임, 닥스침구 등이다. 대표적인 냉감 섬유 상품으로 ‘아이스 큐브 패드’, ‘쿨리쉬 냉감 여름 이불’ 등이 마련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침구 브랜드 프레쉬 파인드와 협업해 단독으로 피씨엠 냉감 이불도 선보인다. 프레쉬파인드 냉감 이불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피씨엠(P.C.M) 신소재로 제작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여름 물놀이를 대비한 수영복 팝업스

토어와 특가 기획전도 운영한다.

먼저, 이달 17일까지 강남점 8층 팝업 공간에서 수영복 브랜드 ‘루프루프’의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동시에 강남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나이키스위, 배럴, 아레나 등 14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바캉스 연합 기획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선현우 패션담당은 “초여름부터 불볕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품과 물놀이 아이템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신세계백화점은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상품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팝업스토어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처음처럼’ 알코올 도수 16도로 낮춘다

롯데칠성음료, 4년여 만에 0.5도 ↓

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렌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구 감소, 음주 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4,250㎏로 전년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9년의 출고량 915,596㎏과 비교해보면 약 7.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주류의 출고량은 각각 1.0%, 4.1% 감소해 희석식 소주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또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과 같은 주류가 포함된 리큐르의 경우, 8.1%, 34.3% 성장하는 등 저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저도주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관심에 맞춰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시 때부터 이어져 온 ‘처음처럼’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넘김을 더하기 위해 100% 암반수에 쌀 증류주를 첨가하고 천연 감미료인 알룰로스로운 맛을 줄이며 부드러움을 높였다. 작년에 변경된 라벨 디자인과 출고가는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처음처럼’의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양애니 ‘버파민’ 론칭 中 이커머스 시장 진출

삼양라운드스퀘어 그룹의 콘텐츠 커머스 계열사 삼양애니(Samyang AA NI)가 K푸드 큐레이션 스토어 ‘버파민’(BUFFAMIN)을 론칭하고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한다고 10일 밝혔다.

‘버파민’은 상태나 능력의 강화 효과를 의미하는 버프(Buff)와 기분 좋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도파민(Dopamine)을 결합한 이름이다.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상품을 엄선해 선보이는 플랫폼 브랜드로서, 즐거운 자극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에너지를 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삼양애니는 티몰, 도우인 등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삼인삼 방식으로 버파민 스토어를 열고, 한국 인기 제품을 판매하는 역직구물 형태로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화점 “전주 대표 가맥 맛보세요”

수도권 주요 점포서 순차적 팝업

현대백화점은 내달 7일까지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전주가맥축제’를 테마로 하는 팝업스토어를 연이어 연다고 10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판교점에서 먼저 운영됐으며, 이후 ▲미아점(11~17일) ▲신촌점(18~24일) ▲더현대 서울(25~31일) ▲북동점(8월 1일~17일)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팝업스토어에는 전주 대표 가맥(가게 맥주)집인 ‘슬기네가맥’이 참여한다. 참치전과 더불어 갑오징어구이, 참치전, 황태구이 등 지역 특화 안주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현대백화점이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주가맥축제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주가맥축제를 많은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전주가맥축제는 매년 10만 명



현대백 가맥축제 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관계자. /현대백화점

이상이 찾는 전주의 대표 여름 축제다. 슈퍼나 작은 가게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황태포, 오징어 등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수도권을 포함해 더 다양한 고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축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유통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힙한 한 잔, 감성은 덤”… MZ 취향저격 ‘즐기는 술’ 시대

‘문화소비’로 진화한 주류시장

롯데칠성 ‘새로도원’ 팝업 연장
하이트진로 테라 라이트 여름 공략
오비맥주 성수동서 체험존 열어
지평주조 딸기막걸리·도슨트 투어
서울장수 얼그레이 전통주 선보

최근 국내 주류 시장이 단순한 음주 문화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건강, 취향,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며 전통주는 물론 과일소주, 로우&는 알코올 제품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여기에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와 도슨트 프로그램 등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는 체험형 마케팅이 더해지며, 주류업계 전반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통주, ‘옛술’에서 ‘힙한 감성주’로**
전통주는 최근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재조명받고 있다. 2024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따르면 전통주에 관심을 보인 참가객 비율은 2022년 15%에서 2024년 19.3%로 증가해 와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서울장수는 얼그레이차를 활용한 ‘얼그레이주’, 지평주조는 ‘살얼음 딸기 막걸리’를 출시하며 색다른 맛과 콘셉트로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까지도 ‘막걸리향 크림 콜드브루’를 출시해 흥미를 더했다. 천연 딸기 리큐르 ‘TINA’를 선보인 아토



롯데칠성음료 팝업스토어 ‘새로도원’ /롯데칠성음료

컴퍼니는 병 하단에 LED 버튼을 달아 빛나는 감성 주류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전통주는 더이상 ‘옛 것’이 아닌, 파티와 프로포즈에 어울리는 트렌디한 술로 변신 중이다.

◆**팝업스토어, ‘즐기는 술’ 문화 이끈다**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마케팅은 ‘브랜드를 경험하는 술’이라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203-세대는 맛뿐 아니라 브랜드가 제공하는 경험과 세계관, 콘텐츠에 주목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서울압구정에서 운영 중인 소주 브랜드 ‘새로’의 팝업스토어 ‘새로도원’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현실 탈출’ 콘셉트가 반영된 이 공간은 누적 체험객 3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



막걸리엑스포 장수막걸리바 콘셉트 부스, /서울장수

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했다.

보다 앞선 지난달에는 오비맥주가 성수동에 ‘수상한 성수역 7번 출구’라는 콘셉트 공간을 조성해 고도수 버전 ‘카스 레몬 스퀴즈 7.0’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오는 8월 ‘전주가맥축제’, ‘홍천강 별빛음악 축제’ 등에 참가한다.

지평주조는 양평의 양조장에서 프리미엄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00년 양조장에 담긴 건축과 술 이야기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로우&는알코올 시장 확대**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와 맞물려 로우&는알코올을 주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논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2021년 415억 원에서 2023년 644억 원으로 55% 넘게 증가했으며, 2027년에는 946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낮은 도수의 술이나 무알코올 대체 음료는 디자인·패키징·맛 모두 고도화되며 단순한 대체제가 아닌 새로운 핵심 제품군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부터 식당·주점을 타깃한 ‘카스 0.0’ 및 카스 ‘레몬 스퀴즈 0.0’ 병 제품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논알코올 맥주 판매 확대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여름 시즌을 맞아 맥주 브랜드 ‘테라 라이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테라 라이트는 일반 맥주 대비 3분의1 수준의 칼로리와 제로 슈거(당류 0g)를 구현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클라우드 논알콜릭’은 특수효모를 활용해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 생성을 제한하고 별도의 제거 공정을 거치지 않아 맛과 향이 살아있는 것이 강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MZ세대에게 술은 단순히 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요즘은 주류 브랜드가 전하는 세계관과 감성, 그리고 건강과 경험을 중시하는 음주 문화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헬로키티 컬래버 에디션

오설록과 콜드브루 티 4종 등 협업

아모레퍼시픽은 고급 차 브랜드 오설록에서 ‘헬로키티’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지난 4월 출시한 ‘스윗 히비스커스 콜드브루 티’ 중심의 콜드브루 티 4종과 신제품 프리미엄 티푸드 ‘그린티 딸기 랑드샤’를 포함한다.

스윗 히비스커스 콜드브루 티는 오렌지와 시나몬이 조화를 이룬 제품이다. 찬물에도 빠르게 우려나며 오래 우려도 짭지 않은 맛을 구현한다. 제로슈거·저칼로리 제품으로 카페인 부담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또 스틱형으로 설계돼 생수병이나 텀블러 등 입구가 좁은 용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 휴대성과 활용도가 뛰어나다.

신제품 그린티 딸기 랑드샤는 딸기 크림과 말차를 한 데 담아 티와 곁들이기 적합한 제품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갖췄다. 콜드브루 티와 그린티 딸기 랑드샤는 구매 시 귀여운 헬로키티 스티커 1종을 함께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설록 ‘헬로키티’ 한정판. /아모레퍼시픽

생명연, 고온 전디는 식물유전자 조절 원리 첫 규명

핵심 단백질 ‘비프라이메이타’ RNA 편집 과정 조절 밝혀내 고온 적응 품종 개발 청신호

국내 연구진이 폭염 속에서도 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자 조절 원리를 세계 처음 밝혀냈다.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을 만들거나, 유전자 조절 기술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조혜선 박사 연구팀은 식물이 고온 스트레스에 맞서 살아남는 비밀을 분자 수준에서 처음으로

로 밝혀냈다고 10일 전했다.

모든 생물의 DNA에는 유전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복사해서 RNA라는 물질로 바꾼다. 이 RNA 안에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부분(엑손)과 불필요한 부분(인트론)이 섞여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편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RNA 편집과정을 ‘RNA 스플라이싱(splicing)’이라고 하며, 실제 편집작업을 수행하는 분자 복합체가 바로 ‘스플라이소좀(Spliceosome)’이다.

연구팀은 이 RNA 재단사인 스플라이소좀을 구성하는 핵심조절 단백질인

비프라이메이타(PP2A B’)를 찾아냈다. 이 단백질은 식물이 고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스플라이소좀의 작동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함으로써 RNA 편집과정이 이뤄지고 식물이 고온 환경에 필요한 단백질을 적시에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이 핵심조절 단백질의 기능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이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반대로 많이 만드는 실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단백질이 없는 식물은 고온에서 씨앗을 틔우지 못하고 쉽게 죽은 반면, 이 단백질을 더 많이 가진 식물은

고온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생존율도 높았다. 이 단백질이 결핍되면 다수의 유전자에서 RNA 편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의 생산이 어려워져 식물이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분자적 기전도 함께 밝혀냈다.

연구책임자인 조혜선 박사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열에 강한 작물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번에 밝혀낸 PP2A B’) 단백질의 기능은 기후 적응형 작물 품종 개발과 정밀 유전자 조절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유한양행 “청년 중심 보건복지 실현”

‘유일한 아카데미’ 출범

유한양행은 지난 8일 청년 사회혁신 프로그램 ‘유일한 아카데미’가 개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인 ‘유일한 아카데미’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30명의 참가자들은 오는 8월 12일

까지 총 5주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탐색하고 솔루션을 기획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개강 첫날에는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에서 발대식을 열고 ‘유일한 아카데미’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발대식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호영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유일한 박사의 생애를 통해 그가 실천한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중소 화장품사 글로벌 공략

‘K-슈퍼루키 위드영’ 본격 전개

CJ올리브영이 지난 9일부터 ‘K-슈퍼루키 위드영’ 사업을 본격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

K-슈퍼루키 위드영은 차세대 K뷰티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올리브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올리브영은 글로벌 사업 부서

의 전문 역량을 적극 활용해 신진 유망 브랜드들의 주력 제품, 진출 희망 국가, 목표 고객층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공개 모집, 지원서 심사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쳤고, 총 232개 중소 브랜드에서 최종 25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해당 브랜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올리브영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된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수험생에 응원 전하면 비타500·햄버거 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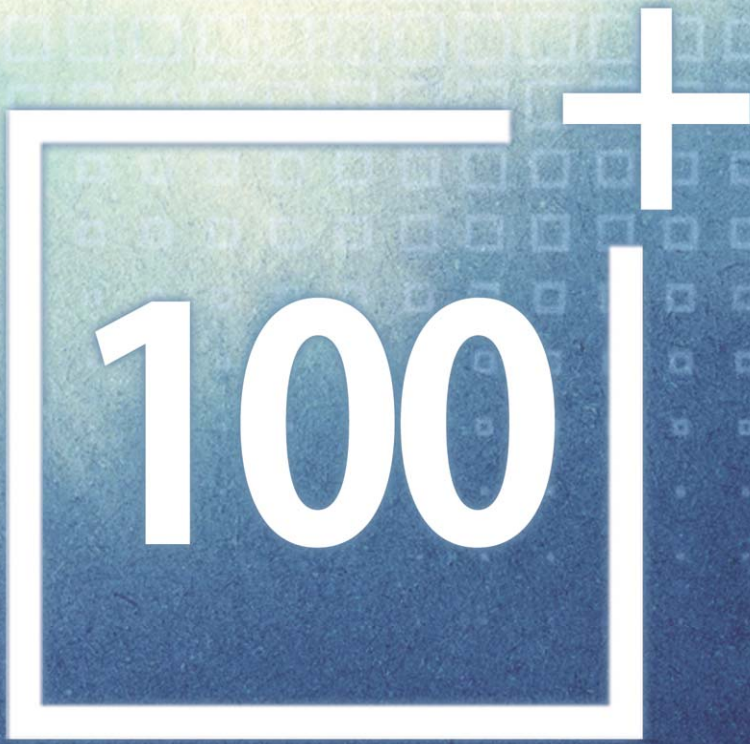
광동제약은 고3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수능 GOOD LUCK 배달부 비타500’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입시 준비에 한창인 고3 학생들에게 간식 세트를 증정하는 응원 이벤트로,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선생님, 졸업생 등 수험생을 응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회사는 가장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은 학교 한 곳을 선정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원에게 비타500과 햄버거로 구성된 간식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명에게 ▲W컨셉 ▲무신사 ▲29CM ▲올리브영 ▲지그재그 5개 플랫폼에서 20만원 한도 내의 경품을 선물로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광동제약 온라인 공식몰 ‘광동상회’ 이벤트 게시물 내 ‘응원 학교 입력하기’ 배너를 클릭한 후 구글폼에 학교명과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세경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7월 22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박희운
-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
-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정재훈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 및 리서치센터장
- 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 달러약세와 지배구조 개선이 가져올 한국증시의 변화
강연	14:50~15:30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 글로벌 자산배분과 리스크 대응형 포트폴리오
	15:30~16:1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내 집은 자산일까, 부채일까? 초고령사회에서의 주거전략과 부동산 시장 전망
	16:1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트럼프 2기와 스테이블코인: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 이글스 선수단·임직원 특별 격려품 전달

티본 스테이크·에어팟 맥스 등 선물
“더 높은 비상으로 정상 차지하자”

한화 김승연 회장이 한화이글스 선수단에 애정 어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화에 따르면 김 회장은 프로 야구 정규시즌 전반기 1위를 확정하며 선전중인 한화이글스 선수단과 임직원에게 특별 격려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날 1군 선수단은 물론 퓨처스리그 선수와 전 스태프에게 티본 스테이크를 선물하고 무더운 여름 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한화

강을 기원했다.
또 전력 분석과 휴식시 활용하도

록 경기 간 이동이 많은 1군 선수단과 스태프 80명에게 에어팟 맥스를 전

달했다.

김 회장은 “인고의 시간 끝에 이글스가 가장 높이 날고 있다”며 “후반기엔 더 높은 비상으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의 이글스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시즌 9차례, 올 시즌 4차례 이글스 경기를 직관하며 팬들과 함께 응원했다. 지난해에는 1군 선수단 전원에게 이동식 스마트TV를 선물해 선전을 지원하기도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효성,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금 전달

효성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보유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7000만원을 여성중앙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정원 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왼쪽)과 진경진 여성중앙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현대글로벌비스,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현대글로벌비스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협력사와 안전예방에 노력한 최우수 기업으로 평가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현대글로벌비스 안전보건팀 김준영 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현대제철, ‘올모하남’ 운영 지원

현대제철은 지난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문화예술 전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하모모하남’의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본 투자 및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현대제철



하림, ‘사랑의 맛데이’ 나눔 행사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맛데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차상위계층 이웃 45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 등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하림

부음

▲이광래(우미그룹 회장)씨 별세, 이석준(우미글로벌 부회장)·석일·혜영(우미건설 건축디자인실 실장)씨 부친상=9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12일 . 031-787-1503

▲최필동씨 별세, 이정자씨 남편상, 최영아·희수·수영씨 부친상, 조인순(마스텐투자운용 인프라부문장)·이건상씨 장인상=10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2일. 02-958-9552

▲김용수(전바이로메드·한솔인티큐브대표이사)씨 별세, 이혜림씨 남편상, 김승미(그랜드 하얏트 서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즈 과장)·송원(플레이리스트 콘텐츠기획제작팀장)씨 부친상=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2일. 02-3010-2000

한라시멘트, ‘희망의 집짓기’ 후원

시멘트·드라이물탈 전량 지원

한라시멘트가 한국해비타트의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25년째 참여하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시멘트는 한국해비타트의 최장수 후원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8년부터는 자매회사인 아세아시멘트도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10일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에 따르면 두 회사는 최근 서울 역삼동 아세아시멘트 본사에서 한국해비타트와 올해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쓰일 시멘트와 드라이물탈 전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희망의 집짓기 후원에는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이훈범 회장이 특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천안 성거읍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왼쪽 두번째)가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왼쪽 세번째)과 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에서 진행한 헌정행사에 참여했었는데 한 입주민께서 소음 등에 걱정없이 아이를 키우게 됐다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면서 “시멘트로 만든 집이니 무너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시라는 말에 다함께 웃었던 기억이 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네트웍스, 구성원 지원 프로그램 ‘눈길’

몸장 이벤트 등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SK네트웍스가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전사적 지원을 꾸준히 시행하며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에 나서고 있다.

SK네트웍스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여름맞이 몸장 이벤트’를 통해 인바디 점수 개선 폭이 큰 성과 우수자들을 선발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신청자를 모집해 6주간 2주 간격으로 인바디 변화를 측정해 성과 우수자들에게는 허리 마사지와 비타민 등 선물이 증정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며 구성원의 금연을 장려하고 있다. 금연 클리닉은 종로구 보건소와 연계

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자에게 금연 보조 물품을 제공하고 총 9회의 대면·비대면 상담과 금연 성공 시 소정의 선물도 지급한다.

SK네트웍스는 구성원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SK네트웍스는 구성원 본인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8회의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분야는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 심리 영역은 물론 재무, 법률, 세무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전화나 화상 등 비대면 방식도 병행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SK네트웍스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 같은 구성원 대상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하이트진로, ‘CF 몬테레이’ 스폰서십 체결

중남미 시장에 진로 인지도 강화

하이트진로가 지난 1일 멕시코 명문 축구 구단 CF 몬테레이(Club de Fútbol Monterrey)와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멕시코 국민 스포츠인 축구와 결합한 현지 밀착형 스포츠 마케팅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주인 ‘진로(JINRO)’의 인지도를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CF 몬테레이는 멕시코 축구 1부 리그 소속의 전통 강호다. 홈구장인 에스 타디오 BBVA는 약 5만3500석 규모로 멕시코 내 네 번째로 큰 축구 경기장이

며, 평균 관중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스타디움 내 ▲상시 노출 가능한 고정 광고판 운영 ▲대형 스크린 및 TV 광고 ▲초대형 전광판을 통한 브랜드 노출 등 다양한 현장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이번 CF 몬테레이와의 스폰서십은 현지 소비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가별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K-소주의 세계화를 ‘진로(JINRO)’가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배달의민족 “‘방학도시락’ 함께 나눠요”

배달의민족은 ‘배민방학도시락’ 사업을 통해 이번 여름방학 전국 8개 지역, 650명의 아이에게 1만400끼니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배민방학도시락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과 2020년 시작한 배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방학 기간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후원사,

고객 등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을 마련하고, 배민은 도시락당 배민식사권 3매를 방학 기간 매 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2025배민방학도시락 여름방학 모금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후원 참여는 ‘배민방학도시락 홈페이지’와 ‘배민 앱’의 모금 이벤트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네이버, ‘해피빈’ 20주년… 누적 3000억 후원

모바일 서비스 등 기부문화 선도

네이버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지난 20년간 1200만명의 이용자가 3000억원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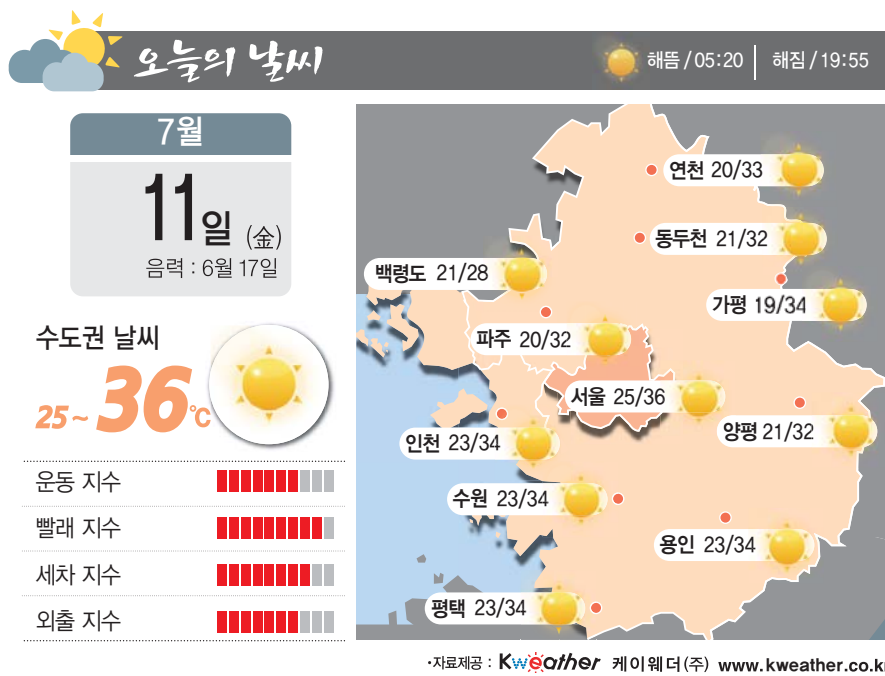
해피빈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온라인 기부 접근성을 높여왔다. 2014년 3월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며 기부의 문턱을 낮췄고, 그 결과 모바일 서비스 출시 이후 결제 기부자가 연평균 564% 이상 급증했다.

또 2015년 6월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한 이후 2015년 대비 2016년 결제 기부 금액은 19% 늘었고, 2017년에는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최근 3년 기준 해피빈의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약 4300원, 평균 기부 횟수는 5.17회로 집계됐다.

네이버 해피빈은 향후에도 지역, 청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온라인 기부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여성 관객
만족도 1위

MUSICAL

HUNKY Show

오직 여성만을 위한 LADIES PARTY!

엄마와 딸, 동료, 그리고 현실에 지친 모든 여성들에게
유쾌하고 핫한 바텐더들이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HUNKY
SHOW
보러가기



더 sexy하고 화려하게 돌아온 화이트 코미디 뮤지컬

2025.4.25 - 8.31 스타스테이지

문의 |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070-4287-0258

<헝키쇼 실제 후기>

● k9872**님

★★★★★

어머니께 찐 효도하고왔어요!!^^

와~ 진짜 그런 찐 행복한 표정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공연 끝나고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효도 다 했다!! ㅋㅋ 너무 고마워 ㅋㅋㅋㅋㅋㅋ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

● arri***님

★★★★★

눈호강 제대로 하고온 날!!!!!!

어머니께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드렸습니다.
엄마랑 이런 뮤지컬 관람나...? 싶었는데
안봤으면 죽을때까지 땅 치고 후회할 뻔!!!

● queeno***님

★★★★★

스트레스 뺏!! 도파민 엔돌핀 뽀뽀!

최근들어 이렇게 웃어본적이 언제인가 싶네요.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났어요. 관객참여형이라 더 좋았고
열정적인 춤사위는 아이돌가수의 춤을 보는듯 했어요.

● louk***님

★★★★★

헝키쇼, 상상을 초월하네요

사실 젊은 친구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시누이와 형님,
엄마와 딸, 다양한 연령대! "내 엄마도 여자다!" 그말에
참 많은 생각을하게했던공연이었습니다.
미친 퍼포먼스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금융감독 개편 단순함이 최선



이 정 혁
西村브리핑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조직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는 항상 정부 조직 개편의 '뜨거운 감자'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의 이해가 서로 얹혀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나뉘어 있던 4대 감독기구를 합쳐 금감원을 신설했다. 금감원 조직 위에 의결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원을 통제하는 구조였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원본이랄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단순 의결 기구였던 금감위가 기재부 공무원들을 대

거 파견받아 구조조정 전면에 나서면서 사실상 정부 부처로 변신했다. 금감원은 돌격대 역할(건전성 감독)에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기관장이 한명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정책과 업무 조율이 이뤄지면서 효율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던 이런 시스템이 크게 바뀐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17대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금감원으로부터 혹독하게 조사를 받았다. 이런 경험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재부 국내금융 부서와 금감위를 합친 금융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금융 정책을 맡겼다. 국제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에 남기고, 금감원을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주저앉혔다. 여기에 자본시장법을 고쳐 자본시장 검사도 금융위의 지도하에만 가능토록 했다. 한 사람이 겸직하던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 분리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주장하는 금융정책이 금융산업 안정을 추구하는 금융감독을 압도하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으로 부임하면 두 기관이 번번히 충돌하면서 시장에 혼란

을 불러왔다.

독립된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설치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론적으로는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로 분리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구를 설치했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가 대폭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욕구와 민원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공적기관이 나서서 1대 1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속도나 결과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방식보다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들이 폭 넓으면서도 촘촘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후에 금감원이 민원 건수와 해결 방식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와 경영자들에게 사후 배상 책임과 징계를 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소비자를 더욱 두렵게 보호할 수 있다.

금융감독 조직 개편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단순함이 최선이다. 자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linh@metroseoul.co.kr

“리포트가 달라졌다?”… 여전히 말 못하는 진실



기 지 수첩
허 정 윤
(자본시장부)

“왜 목표 주가를 하향했냐”는 주주의 항의 전화, “인터뷰 어렵겠다”는 기업의 유보적 반응.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와 기업 IR팀 사이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그 결과 리포트는 실적이 꺾여도 ‘매수’, 많아도 ‘중립’에 머무른다. 시장 진단보다 기업과의 거래와 투자자의 눈치를 의식한 판단이 앞서는 구조가, 증시 신뢰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20대 증권사가 발간한 수천 건의 리서치 리포트 가운데 ‘매도’ 의견은 단 0.1%에 불과했다. 매수 의견은 평균 90.4%, 중립은 9.5%였고, 무려 18곳 증권사는 상반기 내내 매도 리포트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투자 판단의 나침반이 돼야 할 리서치 보고서가 오히려 시장 기대를 부풀리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엘앤에프’의 경우는 매출이 수분기 연속 감소세인데도 2분기 들어 나온 25개의 분석 리포트 중 단 한 건만 ‘중립’ 의견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매수’였다. 일부 증권사는 “답답되지 않는 주가 하락”이라며 오히려 시장을 탓했다.

또한 누구나 알만한 한 대형 기술주의 영업이익은 1년 새 반토막이 났지만, 리포트에서는 목표주가가 오히려 높아졌다. 실적 전망은 낮추면서도 주가 기대치는 상향 조정되는, 모순된 흐름이 반복된다.

이런 기형적 구조의 배경에는 리서치 조직의 ‘이해상충’이 있다. 애널리스트가 취재하는 기업은 동시에 자기 회사의 고객사인 경우가 많다. 매도 리포트로 주가가 하

락할 경우, 해당 기업이 증권사와 거래를 끊는 일도 실제로 벌어진다.

그렇다고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올 들어 급등한 원전·방산·증권주를 중심으로 일부 증권사들이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낮추고 있다. SK증권은 미래셋증권 리포트를 통해 “기대가 과도하다”며 목표주가를 현 주가보다 낮은 1만 8000원으로 제시했고, 신한투자증권은 주가가 3배 이상 오른 원전주에 대해 ‘단기매매(trading buy)’로 의견을 바꿨다. “좋은 회사도, 항상 좋은 주식일 수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메시지도 시장에 보여준 셈이다.

리서치 보고서는 투자자에게는 나침반이고, 기업에게는 거울이다. 애널리스트가 불편한 말도 할 수 있어야, 리포트가 다시 ‘신뢰 자산’이 될 수 있다. 그 신뢰 위에서 건강한 투자와 기업 성장, 그리고 활력 있는 증시가 가능해진다.

/zelkova@

오늘의 운세 7월 11일 (음 6월 1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투자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니. 48년생 소문난 잔치에 자신만 초대받지 못한다. 60년생 가까운 곳에 행운이 오니 기대가 크다. 72년생 오늘날 같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는데. 84년생 거울은 결코 혼자 웃지 않는 법이다.



37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풀어라. 49년생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61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왔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73년생 마음은 있으나 지갑이 따라주지 않는다. 85년생 여행을 떠나면 상비약을 챙겨라.



38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자제해야. 50년생 작은 것은 포기하고 큰 것을 노려라. 62년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라. 74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86년생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39년생 기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은 과감히 포기. 51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얼음물에 넣는 격. 63년생 부적절한 만남을 경계. 75년생 가고자 하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87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이 필요.



40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52년생 어려운 일은 배우자의 도움으로 해결. 64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 뜻을 존중. 76년생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걱정된다. 88년생 친구는 소중한 존재이니 잘 챙겨라.



41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행운. 53년생 옛 연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65년생 적당한 경쟁이 발전의 밑거름. 77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89년생 고마운 표현을 해서 상대에게 알리도록 하는 예의를.



42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경사가 겹친다. 54년생 모심으로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66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78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를 하도록. 90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43년생 얼룩진 옷은 비러난 보지 말고 세탁. 55년생 비단옷을 입고 걸어도 봐 주는 사람이 없다. 67년생 의견이 맞지 않으나 양보. 79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91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44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밝히게 하니 좋은 일이 있다. 56년생 성공을 위해 오늘을 알차게 보내라. 68년생 자주 만나야 친구 간의 정도 있다. 80년생 무엇을 해도 기분 좋은 날이다. 92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는데.



45년생 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57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69년생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라. 81년생 기도로 심란한 마음을 다져 보는 것도. 93년생 누군가의 도움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하루.



46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길을 비켜준다. 5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행복한 날. 70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82년생 때로는 실력보다 성실한 자세가 중요할 수 있다. 94년생 배우자의 생일선물을 구하기가 마땅치가 않다.



47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 써라. 59년생 밤을 이겨내면 찬란한 새벽을 본다. 71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은 필수. 83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상쾌하다. 95년생 모임에서 체면치레하다가 손실이 커진다.



김상회의四季 장수의 비결

언젠가 외국의 유수한 신문에서 충분한 수면과 운동, 건강한 식단 섭취는 질병을 예방하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약 10만 9000명의 100세 인구가 살고 있다. 이는 10년 전 약 6만 5000명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 가족 중 여러 명이 고령까지 살았다면 이미 유전자적 요소는 A 학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영양 좋은 식품과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신체 유지의 필수요건일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스트레스 적은 긍정적인 사고야말로 누가 봐도 바람직한 장수 유전자의 요인일 것이니 그렇게 새로운 주장도 아니다. 필자는 오래전 서울대 통합대학원의 요청으로 오행으로 본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패널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적이 있다. 통계학적 수치 등 학문적 제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사주에 있어 특별한 질병에 걸리는 상관성을 역학적 견지에서 설명해 본 것이다. 물론 여러 변수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토성(土性)이 강하거나 약한 사람은 위와 소장 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고, 수(水) 기운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는 생식기나 신장 관련 질환에 의 노출이 높거나 하는 오행적 논리였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며 낙천적 사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보약을 능가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백세를 맞이한 어느 장수자의 인터뷰에서, “인생은 유리잔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운동하면서도 치즈케이크나 타코를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관조적인 얘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0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1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2					3
	4		8	9	6	
	8		5	2		1
	1					3
	6		1	4		9
2	5		4	7	9	
9						5
						4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1	7		9			6
	4		8	7	6	
						3
						5
			3			2
			9			6
			4			9
8	9			7		
8	4					
7			6	4	8	
6			2		8	9

컬러스도쿠110

100문제

7	9	8	7	9	1	8	6
1	9	8	6	7	8	9	7
6	7	8	9	1	8	7	9
8	6	7	8	1	9	9	7
9	8	9	7	8	6	7	1
7	1	7	2	9	9	6	8
9	7	1	8	9	7	6	8
7	9	9	6	8	8	7	1
8	8	6	1	7	7	9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9	8	7	9	1	8	6
1	9	8	6	7	8	9	7
6	7	8	9	1	8	7	9
8	6	7	8	1	9	9	7
9	8	9	7	8	6	7	1
7	1	7	2	9	9	6	8
9	7	1	8	9	7	6	8
7	9	9	6	8	8	7	1
8	8	6	1	7	7	9	7

7	9	8	7	9	1	8	6
1	9	8	6	7	8	9	7
6	7	8	9	1	8	7	9
8	6	7	8	1	9	9	7
9	8	9	7	8	6	7	1
7	1	7	2	9	9	6	8
9	7	1	8	9	7	6	8
7	9	9	6	8	8	7	1
8	8	6	1	7	7	9	7

와인잔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 “글라스는 과학이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왼쪽부터)하이-라이트 유니버설, 하이-라이트 보르도, 하이-라이트 버건디.

/안상미 기자

술을 가져가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푼키지 프리’ 식당의 유일한 단점은 잔이다. 돈을 안내면 서비스도 없다. 막잔을 쥐도 불편할 수 없다. 식당에 술을 가져가마시는게 보편적인 중국은 고급 식당이 아닌 이상 백주를 가져가도 물잔, 와인을 가져가도 물잔이 기본이다. 투박한 물잔엔 맥주도 맛이 없는데 하물며 와인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오니 와인잔을 내주긴 하는데 안깨지게 투박한 잔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잔에 마시는지에 따라 와인의 맛이 진짜 달라질까.

일단 심미적인 부분에서는 와인잔의 압승이다. 잔은 투명하고, 선은 유려하고, 지탱하는 다리는 가늘고 길다.

슈피겔라우 장 밥티스트 아시아태평양 부사장(사진)은 “한 잔의 와인을 즐기는데 있어서는 심미적 만족이 있어야 한다”며 “무겁고 투박한 잔이라면 멋들어진 경험을 할 것이란 기대를 주지 못하지만 멋진 와인잔은 그런 감정을 먼저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슈피겔라우는 독일의 와인글라스 브



인이다.

십여년 전만 해도 와인잔은 소위 ‘호레카(호텔·레스토랑·카페)’에서만 썼지만 지금은 집에서도 다들 와인잔에 와인을 마신다. 가성비비 슈피겔라우가 크게 각광을 받은 이유다.

밥티스트 부사장은 “와인잔 산업은 늘 변화를 거듭해왔다. 기술과 혁신에 따른 것이기도 했고, 양조 기술 발달과도 궤를 같이 했지만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도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왔다. 팬데믹 이후 최근 몇 년 간 가장 큰 변화라면 업장보다 최종 소비자들과 와인잔을 많이 찾는다는 점으로 작년에 출시한 데피니션과 이번 하이-라이트 라인 모두 그런 흐름속에서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제 본격적인 비교 실험이다. 잔은 야외에서 자주 쓰는 플라스틱 투명컵과 하이-라이트 유니버설, 하이-라이트 보르도, 하이-라이트 버건디다. 매번 90도 가까이 기울여 와인을 잔에 도포해 향과 맛의 차이를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비교는 와인잔 대 플라스틱 컵이다. 와인은 화이트인 ‘앙리 부르주

아 상셰르 블랑’, 잔은 하이-라이트 유니버설이다.

이번에도 와인잔이 코에서나 입에서나 압도적이다. 재질인 크리스탈과 플라스틱의 차이가 아니라 모양 때문이다.

톨립같은 와인잔은 향을 모아아로마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만 컵은 와인을 내벽에 모두 도포해도 뽀어나가는 일자 각도라 향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와인이 입 안에서 어느 부분에 떨어지는지도 중요하다. 혀 끝은 단맛, 중간은 신맛과 짭맛, 가장 안쪽은 쓴맛을 주로 느낀다. 기다란 와인잔으로 마시려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되고 와인은 혀의 앞 부분에 떨어진다. 산미가 충분한 소비뇽 블랑 와인이 단맛을 먼저 감지하는 곳에 떨어지니 균형이 맞춰진다. 반면 컵은 혀 중간 부분에 바로 와인이 들이닥치니 같은 와인이라도 신맛이 강하고 과실미가 덜 느껴졌다.

그럼 같은 와인잔이라도 쓰임새나 모양에 따라 맛이 달라질까.

‘부사빠레 에 피스본 뒤 샤프 1등급’을 3개의 와인잔에 모두 따른다. 프랑스 부르그뉴의 피노누아 품종 와인으로 붉은 과실 풍미에 우아한 레드와인이다.

결과부터 말하면 와인잔에 따라 맛과 향이 달랐다.

베스트는 섬세한 아로마의 레드와인을 위해 만들어진 하이-라이트 버건디다. 넓은 볼의 충분한 공간이 피노누아

의 미묘한 뉘앙스 잘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역시 와인이 혀 앞부분에 떨어지면서 타닌은 조밀하게 느껴지고 둥글고 긴 여운이 남았다.

다음은 같은 레드 와인이니 하이-라이트 보르도가 괜찮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화이트 와인을 위한 잔으로 여겼던 하이-라이트 유니버설이다. 버건디 보다는 좁은 볼로 아로마는 다소 밋밋했지만 입 안에서는 피노누아의 매력이 충분히 발현됐다.

반면 하이-라이트 보르도는 과실미는 약해졌고, 드라이하고 씹쌀한 맛이 더 느껴졌다. 와인잔이 좀 더 직선으로 뻗어있었다보니 쓴 맛을 느끼는 혀 뒷부분이 역할을 하면서다.

이 정도면 와인잔은 과학으로 인정이다.

밥티스트 부사장은 “현실적으로 집에서 유용하게 쓸 한 가지만 고르려면 유니버설 글라스지만 보다 와인을 잘 즐기고자 하면 와인 종류에 따른 적절한 와인을 구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와인잔은 식기세척기에서도 사용할 만큼 내구성이 좋아졌지만 잘 관리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다. 와인잔을 닦을 때 양쪽 끝을 잡으면 와인볼과 다리를 잇는 중간 부분이 툭 끊어지기 쉽다. 너무 차가운 와인을 데울 때처럼 손가락 사이에 다리를 끼우고 닦으면 안전하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샤롯데씨어터, ‘브로드웨이 42번가’ 개막 기념행사

국내 최초 뮤지컬 전용 공연장 샤롯데씨어터가 올여름 대표 기대작 ‘브로드웨이 42번가’ 개막을 맞아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샤롯데씨어터는 관객들이 뮤지컬을 통해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샤롯데씨어터는 ‘브로드웨이 42번가’ 개막을 기념하는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먼저, 공연장과 뮤지컬컴이 국내 최초로 협업한 ‘커티콜 인 샐롯’이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시작으로 문을 활짝 연다. 테이블 서빙을 하던 직원들이 배우로 변신해 펼치는 화려한 쇼와 함께 맛있는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커티콜 인 샐롯’은 무대 안



팍을 넘나드는 특별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샤롯데씨어터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향기 마케팅’도 이번 시즌 다시 펼쳐진다.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화려함과 에너지를 담은 플로럴 시트러스 계열의 향기로 샤롯데씨어터 로비 곳곳을 가득 채운다.

오는 17일부터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5’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 및 B1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24회를 맞이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만나다: 콘텐츠 IP(Meet : Content IP)’를 주제로, 다양한 세대와 산업을 잇는 교류의 장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또한 9개국의 해외 바이어들도 함

께 참여해 콘텐츠 지식재산(IP) 기반의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보드게임콘 2025’와의 동시 개최를 통해 게임 콘텐츠까지 망라하는 복합 콘텐츠 축제로 확장된다. 또,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콘퍼런스 ‘라이선싱 콘 2025’가 함께 열려, 국내외 전문가 간 인사이트 교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제언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미국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은 저서 ‘제로 투 원’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0에서 1로, 진보된 미래로 가라는 메시지를 준다. 책에 따르면, 세상에는 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카피하는, 즉 1에서 n으로 가는 ‘수평적 진보’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요약하자면 0에서 1로 향하는 ‘수직적 진보’가 있다.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100개의 타자기를 생산해내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글로벌화’다. 한 개의 타자기를 본 뒤 워드프로세스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기술’이 된다.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로벌화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기술을 시장에 출시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 독자에게 저자는 ‘독점 기술’이라고 답한다. 책은 자기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술로, 다른 업체들이 감히 비슷한 제품조차 내놓지 못하게 하는 회사를 ‘창조적 독점 기업’으로 정의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글’이다.

항공사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구글은 경쟁자가 없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모든 회사가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을 두고 다투는 탓에 시장 지배력을 가진 곳이 없어, 시장이 정해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



제로 투 원

피터 틸, 블레이크 매스터스 지음/이지연 옮김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만약 수익성이 남아 있다면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 들어와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낮춰 ‘순이익’을 없애버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경쟁 하에서는 그 어느 회사도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고 책은 설명한다.

반대로 시장을 장악한 독점 기업은 제품에 직접 가격을 매긴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량과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사회적 통념과 달리 책은 자본주의와 경쟁은 서로 상극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해 보유하고 싶은 기업가라면,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으로 회사를 차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252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트럼프 “우크라이나·대만 공격 막기 위해 모스크바·베이징 폭격할 수 있어”
▲트럼프, 아프리카 국가들에 “추방 불법 이민자 수용해라” 압박

/사진 뉴시스

▲트럼프, 8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 ‘합의 압박’ EU는 아직
▲중동 전쟁 혼란 속 中 리창 총리 이집트 방문 “다자 무역체제 규범 수호” 강조

▲美, 이스라엘·카타르와 백악관서 비밀회담… “60일 휴전안 논의”
▲OPEC 빈에서 세미나..에너지 이전 논의, 더 강력한 국제 협력 촉구

메트로 한줄뉴스



매장서 직접 보고
앱으로 주문
유통가 '고객잡기'
L1



Life

음주문화 넘어
경험 콘텐츠로
'즐기는 술' 시대
L2



탁 트인 북한산 풍경 한 눈에... 일상에 '사계절 자연' 담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부

북한산, 개명산 등 탁 트인 조망권 갖춰
단지 내 사계절 녹지·자연 느낄 수 있어
곳곳엔 현대적인 팝아트, 조각 작품들도

최근 찾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부'. 1단지과 2단지으로 나눠져 있는 아파트는 두 단지 모두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에서 내려 2번 출구에서 360번 버스를 타고 36분 가량 걸렸다.

단지 입구를 감싸는 외벽은 연회색 계열의 석재 패넬로 마감돼 한눈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 군더더기 없이 수직과 수평 라인을 강조한 구조는 단지 외관의 모던한 고층 건물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도시적이면서도 절제된 미감을 연출한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 '아너스빌'이란 단지명은 입구 측 벽 상단에 메탈릭한 입체 글씨로 시공돼 시선을 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랜드마크 기능도 수행한다.

단지가 위치한 양주 일영지구는 미니신도시급 규모다. 일영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추나들목(IC)을 통해 고양 삼송신도시와 서울 은평구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교외선 장흥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F노선이 추진될 경우 단지 앞에서 더블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명에 걸맞게 북한산을 비롯해 개명산, 석현천, 공릉천 등이 가까워 일영지구에서도 손꼽히는 조망권을 갖춘 단지다.

경남기업이 시공한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부는 1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8개 동 741가구, 2단지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으로 283가구다. 전



용면적 74·84·110㎡ 총 1734가구로 구성됐다.

단지로 들어가니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부만의 탁 트인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의 초입에는 공동마을공원이 위치해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 여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며 녹지와 자연이 살아있는 사계절 아름다운 공원이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김대성 작가의 작품 '세레나데'가 보인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를 모티브로 구상했다. 동화의 한 장면이 입체로 나온 듯한 캐릭터들은 작가의 독창성이 더해져 클래식한 고급스러움과 현대적인 팝아트의 퀄리티를 표출한다. 입주민과 방문객으로부터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낸다.

2단지를 대표하는 조각상은 박윤숙 작가의 '공간-풍경'이다. 유기적 생명의 소통과 삶의 풍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삶의 여유와 안식의 공간, 감성적 풍경이 입주민과 향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단지 중심부에는 석가산과 식재가 조화를 이룬 조경 공간이 배치돼 있다. 불규칙한 형태의 거대한 석재들이 다듬지 않은 듯 쌓여 있어 인공적인 손길보다는 자연 지형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그 사이사이로 다양한 초목이 촘촘히 심겨 있어 사계절 내내 초록 기운이 감돌도록 설계됐다. 바위 군락을 둘러싼 수종도 다양하다. 곧게 뻗은 활엽수와 낮게 퍼지는 소나무, 섬세한 잎을 지닌 관목류가 어우러져 단지 내 미니 생태 정원을 연상케 한다.

입주민 휴게공간인 '스카이가든'도 마련돼 있다. 널찍한 데크 위에는 원목 느낌의 테이블과 의자가 여유롭게 배치돼, 이웃과 담소를 나누거나 가족과 나들이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탁 트인 시야를 선사하는 공간은 도심 속에서도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의 풍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단지 곳곳에는 감각적인 색채 감성이 더해져 조



석가산·식재 조화 이룬 초록빛 조경공간 풍경 바라보며 휴식 즐기는 '스카이가든' 도심 속에서 변화하는 자연 느낄 수 있어

경 공간에 개성을 불어넣는다. 광장 한편에는 줄기를 따라 원색의 천이 감긴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마치 설치미술 작품처럼 눈길을 끈다. 초록, 노랑, 분홍, 파랑 등 다채로운 컬러는 계절에 상관없이 활기를 더하며, 단지 전체에 밝은 에너지를 전한다.

해당 공간은 예술적 감성을 담은 '커뮤니티 조경'으로 구성돼 있다. 무채색의 건물 외관과 절감한 석재 마감 사이에 선명한 색감을 입힌 수목이 대비를 이루며, 입주민 일상에 시각적 재미를 더하는 포인트 역할을 한다. 야외에는 신체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철봉, 워밍업, 풀웨이트 등의 운동 기구 등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스쿨스테이션, 시니어클럽, 키즈클럽, 피트니스 클럽, 펫그라운드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제공된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 놀이공간도 마련돼 있다. 1단지 물놀이터에 위치한 야자수 모양 구조물이 눈에 띈다. 아래 설치된 노란색 바가지 장치는 여름철 물이 가득 차면 일정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쏟아지는 방식으로 작동돼, 물놀이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어준다.

곳곳에 설치된 컬러풀한 물줄기 터널과 곡선형 미끄럼틀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놀이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꽃무늬와 잎사귀 모양 디자인이 더해져 시각적 재미를 주며, 주위로는 조경석과 수목이 함께 배치돼 자연 속에서 뛰노는 듯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공간이 위치해 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 ①단지에서 바라본 전경. 단지명에 걸맞게 북한산을 비롯해 개명산, 석현천 등에 둘러싸인 조망권을 갖췄다.
- ②다양한 초목과 조화를 이룬 석가산
- ③탁 트인 시야의 휴게 공간 '스카이가든'
- ④조각상 '세레나데'
- ⑤조각상 '공간-풍경'
- ⑥공동마을공원 산책로

